오늘도 델시아의 옆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미약한 온기조차도 남아 있지 않은 싸늘한 침대 옆자리.

그것은 이미 구멍 난 델시아의 마음을 후벼팠다. 델시아의 쪽빛 눈동자는 우울함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델시아는 끝없는 공허와 우울 그 끝자락에 있을 감정에 갇혀 반년을 보냈다.

“…에드윈.”

사랑해 마지않는 그녀의 연인.

에드윈은 죽었다. 그것도 반년 전에. 그의 죽음은 바람 한 점 없이 평화로웠던 델시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델시아의 심장은 에드윈의 죽음에 삼켜져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 싶어.”

델시아의 심장은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에드윈을 살리기 위해 쓰였으니.

그녀의 심장은 뛰지 않는다.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에드윈을 구했다. 에드윈은 멀쩡히 살아있다. 그래서 그녀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는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해도.

델시아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명의 근원인 심장을 다른 이에게 내주었으니 당연했다.

그녀의 심장은 에드윈의 몸에서 뛰고 있었고, 제대로 된 심장 대신 인공 마력 심장을 가진 델시아는 곧 죽는다.

“에드윈이 보고 싶어.”

델시아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이라면, 그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델시아에게 에드윈을 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델시아도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에드윈의 저택 별채에 버젓이 있는데도 에드윈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 사용인들도 델시아의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의아했던 델시아의 아버지, 페르도 백작이 그를 찾아가 물었었다.

“아델리오 공작님, 왜 제 딸을 찾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페르도 백작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딸이 심장까지 바쳤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에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백작에게 딸이 있었습니까?”

그 말에 페르도 백작은 멍한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은 당신에게 심장을 줘 살려낸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에드윈의 모습에 황당하고 분해서.

에드윈은 자신의 소중한 딸, 델시아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아니면 정말 모른다던가.

전자가 사실이라면 에드윈은 다시 없을 명배우일 것이고 후자일 경우에는...

페르도 백작의 고개가 힘없이 아래로 꺾였다.

그리고 델시아에게 이 일을 함구했다. 가뜩이나 병약한 그녀에게 알렸다가는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감히 상상도 가지 않기에.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델시아는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

“…에드윈.”

“귀한 손님이 별채에 지낸다고 하여 방문하였는데.”

서릿발처럼 차가운 음성이 델시아의 귓전에 선연히 꽂혔다.

에드윈이었다.

델시아의 에드윈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오로지 그녀만이 만질 수 있던 에드윈.

델시아는 야위어버린 손을 뻗었다.

자신의 얼굴을 향해 뻗어지는 가느다란 손을 잔혹하게 쳐낸 에드윈이 싸늘히 말했다.

“그 손님이 일면식도 없는, 어느 가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군요.”

“…에드윈.”

“혀가 잘리고 싶지 않다면, 그 입을 다무시길.”

꽃이 필 정도로 따스했던 눈동자가 온데간데없었다. 저를 보며 지어주던 부드러운 미소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각오했음에도 마음이 쓰라렸다.

제 이름만은 기억해줬으면 했던 바람이 사치였던 것일까.

델시아는 화끈거리는 손목을 쥐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반년이었다. 에드윈의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에드윈의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별채에 산 시간이.

반년이었다. 에드윈을 보지도 못하고 별채에 죽은 듯이 있었던 시간이.

그런데, 이제야 저를 찾아온 자신의 에드윈이.

저를 모른다는 얼굴로, 이상한 여자를 본다는 얼굴로 말한다.

나가라고.

델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있었다면 이 느닷없는 상황에 놀라 쿵쾅거렸을 텐데.

그녀의 심장은 사랑하는 에드윈에게 있기에, 델시아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각오했었다.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기억할 가능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그런데도 기대했다.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그가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델시아는 눈물을 참았다.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참아낸 델시아가 비틀거리며 예를 갖췄다.

에드윈은 기가 찬다는 듯 실소하며 지껄였다.

“해준 것이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인사치레는 됐으니 나가십시오.”

드레스 자락을 쥔 델시아의 야윈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델시아는 진심으로 울고 싶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중한 에드윈에게 울며 매달리고 싶었다.

델시아는 비칠거리며 문 앞에 선 에드윈을 지나쳤다. 에드윈은 팔짱을 낀 채 침실을 나서려는 델시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곡예라도 하듯 아슬아슬하게 걷던 델시아가 이내 풀썩 주저앉았다.

한계였다. 심장이 있을 자리에 있는 인공 마력 심장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말 그대로 존재할 뿐이었다. 하여 델시아는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제외한 행동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걷는 것도 반년 만에 처음이었다. 별채 안 침실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으니.

삐-하는 이명과 함께 델시아의 눈꺼풀이 그대로 감겼다. 바닥에 앉은 채로 있던 델시아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이봐!”

에드윈이 놀란 목소리로 델시아에게 달려갔다. 델시아의 얼굴은 희게 질린 상태였다.

에드윈이 미간을 찌푸리며 델시아를 안아 들었다. 축 늘어진 몸이 기이하게도 가벼웠다.

델시아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페르도 백작이 서글픈 얼굴로 제 딸을 내려다봤다.

파리한 안색이 그녀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페르도 백작이 조심스레 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페르도 백작.”

“…제 딸아이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가볍던데-”

“죄송하지만,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백작.”

“제 딸아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셨습니까?”

눈물이 가득 들어찬 백작의 눈이 원망스러운 빛을 띠었다.

“그래서 저도 말렸습니다. 죽은 공작님을 살리겠다는 제 딸아이에게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딸아이의 심장을 가져가셔놓고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울음 섞인 외침이 침실을 메웠다. 페르도 백작은 고개를 떨어트렸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백작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는 공작님 앞에 제 딸아이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보이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하겠지요.”

죽은 듯이 누워있는 델시아를 조심스레 안아 든 백작이 에드윈에게 고개를 까딱이고는 침실을 빠져나갔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다.

델시아는 설렘이 그득한 쪽빛 눈동자로 고운 미소를 지으며 에드윈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용인들도 분주히 준비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오늘은 폴타 왕국과의 전쟁을 위해 서부의 변경에 갔던 에드윈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델시아는 돌아온 에드윈과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자신이 있었다.

에드윈은 언제나 델시아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델시아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만 했다.

에드윈이 돌아오는 날이었기에 더욱 꾸미고 싶었다.

에드윈이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었다고, 당신 걱정을 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기는 했어도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노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에드윈은 그 무엇보다도 델시아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상아색 머리칼을 하나로 딴 델시아는 침실을 걸어 다니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나 정말 괜찮아?”

“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세요.”

“빈말이라도 고마워, 엘라.”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꾸하는 시녀, 엘라의 모습이 귀여워 델시아가 방긋 웃었다.

서신에 따르면 에드윈은 오늘 저녁에서나 수도에 도착한다고 했다.

아직 점심때였지만, 델시아는 흥분과 떨림을 주체할 수 없어 잔뜩 들뜬 상태였다.

“에드윈이 돌아오면 꼭 안아줘야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아가씨. 공작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걱정된다. 오랜만에 봐서 어색해할지도 몰라. 에드윈은 숫기가 없으니까.”

“…공작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을걸요?”

엘라가 너스레를 떨었다.

에드윈이 변경으로 떠난 지 약 석 달이 흐른 시점이었다.

하여 델시아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부끄럼 많은 에드윈을 석 달 동안이나 보지 못했으니, 그가 자신을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게 그 걱정이었다.

물론 엘라를 비롯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에드윈은 숫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델시아를 제외한 사람에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

“아, 아가씨!”

저택의 문이 활짝 젖히며 다급하고도 절박한 목소리가 저택에 울렸다.

곳곳에서 움직이던 사용인들이 깜짝 놀라 기웃거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였다.

그 소리에 마침 침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향하던 델시아의 걸음이 멈춘 것도 당연지사였다.

유능한 하인 호머의 아들인 저택의 심부름꾼 렌토였다.

“아, 아가씨...아아.”

델시아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렌토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다.

풀썩 주저앉은 렌토가 제 앞에 선 델시아를 올려다보며 들고 있던 종이를 달달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핏물이 든 종이를 건네받은 델시아가 갸웃거렸다.

“렌토, 이게 뭐야?”

“그...그게, 그게요.”

“야, 렌토! 더듬거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봐.”

“괜찮아, 엘라. 내가 읽어보면 돼.”

찌푸린 얼굴로 채근하는 엘라를 달랜 델시아가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다.

핏물이 든 종이 안에는 급하게 휘갈긴 티가 나는 글씨가 엉망진창으로 있었다.

델시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내 동공이 바들거리며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이게 무슨 말이야?”

델시아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델시아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현실이 눈앞에서 델시아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델시아의 손에 든 종이가 잘게 떨렸다.

“…아.”

델시아의 잇새로 짧은 울림이 일었다.

“…하하.”

돌연 델시아가 웃음을 터트렸다.

웃음을 터트리는 델시아의 얼굴은 건조하게 메말라 있었다.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관례는 이미 했잖아.”

페티아 제국에는 귀족이고 평민이고 가릴 것 없이 행하는 전통이 하나 있었다.

전장으로 가는 가족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기 위해 붉은 물이 든 편지를 적어서 태우는 것.

그 편지 안에는 가족의 이름과 그 가족이 전사하였다는 글귀를 적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핏물이 든 편지를 실제로 받지 않기 위해 옛날부터 해오던 작은 전통이었다.

델시아의 오빠인 아놀드를 보낸 페드로 백작 가문과 에드윈을 보낸 아델리오 공작 가문도 그 전통을 치렀다.

“...렌토.”

“죄, 죄송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주저앉은 렌토가 울상으로 고개를 조아렸다.

“아니지?”

“아가씨...”

“에드윈이...아니지?”

델시아는 확인을 위해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장난이라는,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런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었다.

렌토의 조그만 머리통이 좌우로 흔들렸다.

델시아의 쪽빛 눈동자가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

힘겹게 버티고 서 있던 델시아가 마침내 비틀거렸다.

“아가씨!”

엘라가 서둘러 델시아를 부축하며 침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에드윈이 좋아하는 색의 드레스를 입은 델시아의 손에는 여전히 종이가 쥐여 있었다.

엘라의 부축으로 침실에 도착한 델시아가 침대 끝에 걸터앉으며 심호흡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진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쉴 새 없이 쿵쾅댔다.

몸을 떨며 버티던 델시아의 잇새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흐…흐윽.”

“아가씨...”

종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엘라가 당황한 얼굴로 델시아를 얼싸안았다.

“에, 엘라. 흐, 흐흑.”

“…아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종이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델시아가 흐느끼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엘라는 자신의 주인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되도록 모른 체하며 불행을 거부하고 싶었다. 그리하면 닥친 불행도 사그라들 것 같았기에.

하지만 엘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불행이 찾아온 것을 증명하듯 서럽게 우는 제 주인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에, 에드윈이. 에드윈이...흐흐흑.”

델시아의 연인, 에드윈 아델리오 공작이 전사하였노라고.

종이에는 그리 적혀 있었다.

긴 전투 끝에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가던 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흑마법사가 나타나 광범위한 마법을 펼쳤다고.

그 광범위한 마법을 홀로 막아낸 에드윈이 일격을 날리기 직전에, 마법사가 재빠르게 주문을 영창하였고 그 마법이 델시아의 오빠, 아놀드에게 향했다고.

그것을 본 에드윈이 일격을 날리는 것을 포기하고 아놀드 대신 그 마법을 맞았다고.

다시금 상기한 델시아의 온몸이 바르르 떨렸다.

에드윈이 무슨 생각으로 아놀드 대신 마법을 맞았는지 알고 있었다.

에드윈은 슬퍼할 델시아를 생각하여 몸을 내던져 아놀드를 지킨 것이다.

정확히는 델시아의 마음을 지킨 것이었다.

“…에드윈. 흐, 흐윽. 에드윈.”

에드윈은 델시아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 델시아의 마음은 진창이 되었다.

에드윈 아델리오가 죽었다.

그와는 상극인 흑마법에, 에드윈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비밀에 부쳐져 페드로 가문과 아델리오 가문에만 도착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다면 제국이 흔들리기에.

황실은 델시아와 아델리오 가문만을 흔들기로 결정했다.

에드윈의 시신과 그의 찬란했던 얼굴을 가린 가문의 깃발 그리고 차가운 관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다.

델시아는 이틀 내내 눈물을 흘리며 에드윈을 부르짖었다.

혹여 잠에라도 들면 에드윈의 이름을 웅얼거리며 잠꼬대했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했다.

엉망진창. 정말 엉망진창으로 불릴 만한 그런 이틀이었다.

델시아와 페드로 가문 그리고 아델리오 가문만이 보낸 지옥 같은 이틀이었다.

“흐, 흐으윽.”

델시아는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알기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사랑스러웠던 고양이 엘리샤가 죽었다.

크고 나서야 알게 됐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아니,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감정이 슬픔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 아아... 아악!”

델시아가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내질렀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이런 비참한 게 델시아의 현실일 리 없다.

델시아는 에드윈이 지킨 자신의 오빠, 아놀드를 보며 또 울었다.

아놀드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해, 델시아.”

아놀드의 사과에 델시아는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전쟁의 폐해였고, 이 모든 것은 전쟁에 임한 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다만, 델시아가 그 감내의 대상이 된 것일 뿐이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델시아는 단단한 사람이었으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에드윈을 품었던 가슴은 이해하지 못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면.

이 모든 것이 깨고 나서 안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악몽이었다면.

하지만 델시아는 에드윈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을 부정하는 건, 그동안 전쟁에서 스러져간 모든 이들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시신 앞에 선 델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에드윈의 차디찬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게 에드윈일 리 없는데.

델시아는 에드윈의 얼굴을 하염없이 매만지며 읊조렸다.

나의 에드윈이 이런 모습일 리 없는데.

델시아는 눈물로 자욱해진 시야로 에드윈을 내려다봤다.

에드윈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아니, 그래 보여야만 했다.

델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돼.”

이틀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델시아의 에드윈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됐다.

델시아는 에드윈을 보며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절박한 델시아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일전에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수도 외곽에는 이상한 숲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숲에 사는 마녀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대가는 없지만, 그 숲을 찾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델시아가 비칠거리며 일어났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걸음을 내디딘 델시아는 마차도 타지 않고 움직였다.

델시아의 초점은 현실 너머 그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델시아는 흙먼지를 뒤집은 채 자신의 앞에 펼쳐진 광경을 쳐다봤다.

그 숲이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녀가 사는 숲.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다녔는데, 정말 숲이 존재했다.

어떻게 찾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델시아는 비틀대며 숲에 들어섰다.

그러자 델시아를 삼킨 숲이 언제 그곳에 존재했느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숲은 어둡고 습하며 암울했다.

하지만 델시아가 겪은 상황처럼 암울한 것은 없었다.

델시아는 결연한 빛을 띤 얼굴로 걸었다. 마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발길이 닫는 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델시아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여린 살갗에는 상처가 잔뜩 생겼다.

엉망이 된 상태로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을 뻔했을 때, 커다란 나무 하나가 보였다.

델시아는 눈을 의심했다.

나무 안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저곳에 마녀가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델시아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나무 앞으로 달려갔다.

나무 앞에 선 델시아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도와…도와주세요!”

미약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광활하고도 고요한 숲을 가득 채우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소리였다.

이윽고 빛을 뿜던 나무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인간이 함부로 올 곳이 아닌데...어머나.”

붉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여성이 문을 열고 나무에서 나왔다.

마녀라고 일컬어지는 비안나였다.

“…셀레나?”

“…네?”

“아..., 미안. 착각했네.”

입을 다문 비안나가 뒷머리를 긁적거리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어...그래. 일단 들어와.”

나무의 문이 열리고 따스한 빛이 새어 나왔다.

델시아는 비안나의 허락하에 그 나무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어색한 몸짓으로 푹신한 의자에 앉은 델시아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함부로 집안을 둘러보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되어 시선을 아래에 둘 수밖에 없었다.

“몸이 많이 상했구나.”

비안나가 중얼거리며 델시아에게 따스한 담요를 건네줬다.

“고, 고맙습니다. 그-”

“비안나라고 부르면 돼.”

“…고마워요, 비안나.”

“이곳까지는 어쩐 일이야?”

비안나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어느새 델시아의 앞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있었다.

델시아는 그 찻잔에 손도 대지 못하고 꼼지락거리다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들었거든요.”

“소원을 들어주는 마녀가 산다는 이야기?”

“...네.”

“그렇다면 잘 찾아왔네. 내가 그 마녀거든.”

생긋 웃으며 대꾸한 비안나가 델시아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네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데. 최근에 죽은 사람이 있니?”

“...네.”

“그 사람을 살리려는 거야?”

“...역시 어려울까요?”

불안함이 묻어나는 음성에 비안나가 웃음을 터트렸다.

“그럴 리가.”

“아...”

다행이었다. 에드윈을 살릴 수 있다.

그리 생각한 델시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자 비안나가 일순 얼굴을 굳혔다.

“대가만 충분하다면 가능하지.”

“대가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비안나는 우울한 미소를 얼굴에 그렸다.

“다시는 이런 소원을 들어주지 않기로 했는데...”

작게 중얼거린 비안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가는 심장이야.”

“네?”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살려면 방법은 하나잖아. 뛰는 심장을 집어넣어야지.”

심장.

그것이 있어야 에드윈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델시아의 속눈썹이 바르르 떨렸다.

그런 걸 미리 알고 준비했을 리가 없다.

아니,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구할 수나 있었을까.

델시아는 주먹을 그러쥐었다.

바싹 마른 델시아의 입술이 힘없이 벌어졌다.

“심장...이요.”

어려운 대가였다.

빈말로라도 구해내겠다고 뱉어낼 수 없을 만큼이나.

하지만 싸늘히 식은 에드윈의 주검을 떠올리니 마음이 급해졌다.

뛰고 있는 심장.

자신이 그것을 구해낼 수 있을까?

델시아는 저를 주시하는 비안나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했다.

“구할 수 있겠어?”

“...”

비안나의 물음에 델시아의 몸이 흠칫 떨렸다.

아무리 고민해도 확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델시아의 눈동자가 길을 잃고 방황했다.

창백한 델시아의 얼굴을 본 비안나의 마음이 약해졌다.

하여, 하지 않으려던 말까지 꺼내게 됐다.

“…멀리서 찾을 것 없어.”

“네?”

“네 심장도 가능하니까.”

“아...”

“잘 권하지는 않지만.”

아.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잘 권하지 않는다는 뒷말에도 델시아의 안색은 환해졌다.

이대로 에드윈을 구하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참으로 다행이었다.

델시아는 에드윈을 위해 심장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에드윈도 델시아의 마음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심장을 대가로 주겠다고?”

“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태도에 비안나의 마음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놓일 자리가 생겼다.

“...이름이 뭐야?”

“델시아노르 페르도예요.”

“…페르도.”

미간을 찌푸리고 곱씹듯 중얼거린 비안나가 앉아 있는 델시아의 손을 맞잡고 뇌까렸다.

“델시아노르 페르도와 비안나 테리엄은 생명의 근원을 대가로 불문율에 어긋나는 계약을 성사한다.”

비안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둘의 주위에 노란 빛무리가 생겼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몸집을 부풀리던 빛이 점점 사그라들며 델시아의 손등이 번쩍였다.

이윽고 델시아의 손등에 풍성한 나뭇잎과 가지로 이루어진 나무 모양의 노란색 마법 인장이 새겨졌다.

“이제 됐어.”

“…끝인가요? 이제 에드윈은 살 수 있나요?”

“일단은 계약만. 네게도 가족이 있을 거 아냐. 가족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

에드윈의 생각으로 꽉 차 있던 델시아의 머릿속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델시아는 뒤늦게 저를 걱정하던 아버지와 오빠, 아놀드의 얼굴을 떠올렸다.

델시아의 결정에 슬퍼할 그들의 얼굴까지도.

“모레 찾아갈게. 그때 자세히 설명해줄 테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네.”

델시아가 짤막하게 대답하자 비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델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윽고 환한 빛이 새어 나오며 델시아의 몸이 사라졌다.

“…이를 어쩐다.”

델시아가 서 있던 곳을 쳐다보던 비안나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인 줄 알았다면-”

거절하는 건데.

델시아는 순식간에 저택 앞에 서게 됐다. 이런 방식의 이동 마법은 처음인 데다가 체력 또한 많이 약해진 상태라 한참을 비틀거려야만 했다.

간신히 균형을 잡은 델시아가 올바른 곳에 도착한 것인지 확인하려 저택을 올려다봤다.

화려한 외관을 보니 페르도 백작 가문에 제대로 도착한 것이 맞았다.

저택 안에 들어선 델시아가 향한 곳은 침실이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페르도 백작 앞에 섰다가는 제대로 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에서 나오는 잔소리만 들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델시아는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엘라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엘라의 도움을 받아 목욕한 델시아는 단정한 톤의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이윽고 델시아가 걸음을 옮겼다. 델시아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버지, 페르도 백작의 집무실 앞이었다.

집무실 앞에 선 델시아가 짧게 심호흡하며 문을 두드렸다.

“누구지?”

문 틈새로 피로한 듯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오자 델시아의 눈이 질끈 감겼다.

제 일로 가뜩이나 심란하신 아버지께 못난 짓을 벌이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며 달싹거리기만 하던 입술 새로 가느다란 음성이 흘러나왔다.

“저…예요. 델시아요.”

“오, 델시. 흠흠, 들어오렴.”

건조한 목을 가다듬은 페르도 백작이 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델시아의 기다란 속눈썹이 약간의 물기에 젖어 들었다.

에드윈을 살리기 위해 심장을 바친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실지...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잘게 떨리는 델시아의 손이 금으로 만들어진 문고리를 돌렸다.

“델시, 저녁 식사 전까지 이 아비와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너의 이야기라면 언제든 듣고 싶단다. 이리 와서 앉으렴.”

집무실 책상에서 깃펜을 들고 있던 페르도 백작이 소파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문을 연 채 우두커니 서 있던 델시아가 천천히 소파로 향했다.

상심에 젖은 얼굴로 애써 웃음 짓는 아버지를 마주하고 앉으려니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했다.

델시아의 입술이 꾹 닫힌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페르도 백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음…델시, 기분은 괜찮니?”

“...네.”

“엘라가 그러던데, 마차도 타지 않고 어디를 다녀왔다면서. 힘들지는 않았어?”

“...네.”

어디를 갔었느냐고 묻지도 않는, 믿음이 가득한 상냥한 목소리에 자꾸만 몸이 달달 떨렸다.

저를 보며 다정한 빛을 띠는 아버지의 눈동자에 대고 어떻게. 어떻게 에드윈을 살리려 심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한다고 한들 제 아버지가 믿을 수나 있을까.

델시아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델시아? 왜 그러니?”

“…아, 아버지.”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델시아에게서 흐느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자 페르도 백작의 눈이 동그래졌다.

“오, 델시.”

페르도 백작의 눈동자가 촉촉이 젖었다. 백작은 델시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약혼자를 본다면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델시아가 에드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았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게다가 에드윈이 명을 달리한 이유 또한 그러했으니...

딸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침울하고 참담하겠는가.

그 심정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페르도 백작은 안타까운 낯을 하고 델시아를 봤다.

“죄송해요…죄송해요, 아버지.”

말을 잇는 델시아의 조그만 입술이 달달 떨렸다.

델시아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이내 여러 방울의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렀다.

끊어질 것처럼 희미하던 델시아의 목소리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제가, 제가 이런 딸이라...정말 죄송해요.”

“델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을 벌려도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페르도 백작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다.

걱정과 애정이 듬뿍 담긴 눈동자로 자신을 보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실토해야만 했다.

“…에드윈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잠깐, 델시.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제가 조금만 아프면 된대요.”

“델시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이어지자 페르도 백작은 얼빠진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제 심장만 주면 된대요.”

“…뭐? 지금 네가 제정신이야, 델시아노르?”

“정말, 정말 죄송해요.”

사실확인도 어려운 말로,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델시아의 모습에 페르도 백작의 음성이 금방 노기를 띠었다.

페르도 백작의 잇새로 무거운 숨이 흘러나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페르도 백작은 소중한 존재를 잃은 딸아이의 고통을 잘 알기에, 더욱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

헛된 희망은 남겨진 이를 고문하는 것이다.

제 딸아이가 어디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페르도 백작의 머릿속에 들어찼다.

“…죽은 에드윈을 살릴 수 있어? 그것도 네 심장을 바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델시아.”

“허락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델시아, 너-”

“이미 결정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호함마저 느껴지는 목소리에 일순 페르도 백작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상심이 클 딸아이를 생각해 고른 숨을 유지하려던 페르도 백작은 그 말에 입술을 벙긋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너, 너...”

“제발...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델…델시아노르!”

마침내 커다란 노성이 집무실을 뒤흔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델시아는 눈물이 범벅인 얼굴로 예를 갖추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당장 이리 와, 델시아!”

집무실의 문을 닫았음에도 화가 난 페르도 백작의 고성이 들려왔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저택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델시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에드윈의 시신을 안치한 위층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차분히 아버지를 이해시키려던 델시아의 계획은 망가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 앞에 서니 담담히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 다정한 눈동자를 보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비칠거리며 걸음을 내딛던 델시아의 다리가 어느 방 앞에 멈춰 섰다.

에드윈의 시신이 안치되어있는 방이었다.

사랑하는 에드윈을, 아놀드를 구한 에드윈을 싸늘한 지하실에 안치할 수 없다는 델시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눈물을 전부 닦아내고 변칙적으로 이어지는 잔 울음까지 가다듬은 델시아가 문을 천천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살아있는 이가 머무는 방의 공기와는 현저히 다른 느낌에 델시아의 몸이 잘게 떨렸다.

어딘가 어색한 걸음걸이로 에드윈의 옆에 선 델시아가 그의 얼굴을 가리는 깃발을 걷어냈다.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게 식은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다.

하지만 아까의 일을 떠올리자 그에게 따스한 온기를 다시 선물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을 채웠다.

하여 델시아는 울음을 참아낼 수 있었다.

바들거리는 손으로 에드윈의 싸늘하고 딱딱한 뺨을 살짝 쥔 델시아가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희미한 속삭임을 그가 알아들었을 리는 만무하였지만, 델시아는 몇 번이고 속삭였다.

당신을 이대로 보낼 수 없으니 조금만 이기적으로 굴겠다고.

한참을 그렇게 속삭인 델시아가 문을 조심히 닫으며 방을 빠져나왔다.

침체한 분위기 속에서 저택의 밤이 지나갔다.

저녁도 거른 채 얕은 잠이 들었던 델시아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동자에서는 기묘한 생기가 느껴졌다.

엘라는 아침까지 거르려 하는 델시아를 간신히 설득하여 식당으로 데리고 왔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는 페르도 백작과 이상하리만치 결연한 표정의 델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아놀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이면 장례식이-”

“아놀드.”

페르도 백작이 말허리를 자르고는 포크를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아놀드는 페르도 백작이 자신이 선택한 화제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며 입을 다물었다.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로 아침 식사가 마무리되었다.

“델시아노르.”

“…네.”

“아비와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

“아놀드와 함께 집무실로 오거라.”

평소와 달리 고저 없는 아버지의 음성에 아놀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델시아를 쳐다봐야만 했다.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만 방문하는 집무실로 오라고 하다니.

델시아에게 시선을 준 페르도 후작이 먼저 식당을 나서고, 아놀드의 입술이 달싹였다.

“델시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미안. 가서 얘기하자.”

바싹 마른 입술에서 희미한 탁성이 흘러나왔다. 텅 빈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델시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드레스 자락을 쥔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아놀드마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커다란 저택이 살얼음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를 향한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가 더 걱정스러웠다.

그리 생각하자 각오했음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세차게 뛰었다.

무거운 걸음으로 집무실 앞에 선 델시아가 문을 두드렸다.

“…저예요.”

“들어와라.”

문을 열고 들어간 델시아가 페르도 백작 곁에 섰다.

“앉으렴.”

델시아가 페르도 백작의 오른쪽에 놓인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페르도 백작은 아놀드를 기다리며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다가 금세 끊겼다.

아놀드가 문을 두드린 것이다.

페르도 백작의 허락을 받은 아놀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에 들어왔다.

그는 델시아의 맞은편에 앉아 제 아버지를 쳐다봤다.

“델시아.”

“…네.”

“이야기를 시작하려무나.”

페르도 백작의 녹색 눈동자가 델시아를 담았다.

가라앉은 얼굴로 허벅지 위에 올린 제 손을 보던 델시아의 입술이 달싹였다.

이윽고 델시아의 말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으로 날아갔다.

“...”

소중하며 사랑스럽지만, 이제는 가엽기까지 한 제 동생의 말에 아놀드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아니, 아놀드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 자신이 멍청하게 그곳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러기만 했다면, 제 동생이 비수를 손에 쥘 일 따위는 없었을 텐데.

아놀드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다. 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었다.

그 부주의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는데. 아니, 상상도 못 했는데.

“…마녀를 만났다고?”

“응.”

“마녀가, 아니, 아니야. 네 심장만 있으면 아델리오 공작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야.”

“…아니, 그런 걸 물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나는-

아놀드가 손으로 제 얼굴을 덮었다.

“네가...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

“각오했어.”

“지금 너를 잃는 우리의 심정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손을 내린 아놀드가 헛웃음을 터트렸다.

똑똑하게만 굴던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나 바보처럼 굴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었기에.

페르도 백작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는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뎠다.

“델시, 우리는 너를 잃을까 두렵단다.”

“...”

“심장이…, 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있겠니?”

“그것도 각오-”

“각오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델시.”

델시아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꽉 쥔 채로 허벅지에 놓인 주먹이 바르르 떨렸다.

델시아는 자신이 했던 각오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받아들여야만 했다.

자신이 쥐고만 있던 대못이 어느새 자신의 손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장에 박혔다는 사실까지도.

그 모든 것은 델시아의 몫이었다.

그리 깨닫자 무게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델시아의 숨이 가쁘게 쉬어졌다.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에 자칫하다가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델시아는 애써 호흡을 다잡고 제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들어 올려 아버지를, 오빠를 바라봤다.

델시아가 바라본 가족들의 표정은...

델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황망했다.

“델시, 네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니?”

“...저는, 저는 에드윈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델시.”

“저도 제가 나쁜 거 아는데요..., 다 아는데. 이대로 에드윈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델시아의 창백한 뺨에 눈물 줄기가 뻗어졌다.

“죄송해요, 정말…정말 죄송해요.”

“…델시아, 에드윈이 정말 그러기를 바랄 것 같으냐?”

어쩌면 애원에 가까운 물음이었다.

“아니요, 아니겠죠. 에드윈은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해야만 해요.”

“델시아노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굴게요. 네?”

페르도 백작을 향한 델시아의 눈동자는 희뿌옇게 흐트러져 있었다.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델시아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착한 딸 했으니까, 착한 동생 했으니까...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제발, 제발요.”

“…델시.”

페르도 백작의 눈이 질끈 감겼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앓았던 것이 무색하게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딸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되돌려놓겠다는 일념이, 딸아이의 애원 앞에서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고, 누군가 그랬던가.

페르도 백작은 제 딸이 발을 내디딜 길이 가시밭 아니 진창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뜯어말릴 수가 없었다.

자신과 아놀드의 심장이 난도질당하여 너절해진 것을 피력할 정신도 들지 않았다.

페르도 백작의 뺨에 가느다란 물길이 생겼다. 물길의 끝은 절벽이었다. 물방울 하나가 페르도 백작의 손등 위로 떨어져 굴렀다.

“이건 이기적으로 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 델시아.”

아놀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을 뱉어내고도 진정이 되지 않는 듯 시선을 가누지 못하며 주먹을 쥐락펴락하던 아놀드에게 페르도 백작이 고개를 내저었다.

“네 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니.”

갈라진 음성이 흘러나왔다.

델시아는 제가 벌인 상황을, 제가 만들고 쑤신 상처를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 하나 때문에 가족 모두가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델시아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미웠다.

“죄송해요...정말, 정말로 제가-”

“그만. 그만하렴, 델시아. 이만 나가봐도 좋다. 아놀드 너도.”

말허리를 자른 페르도 백작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델시아는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으며 빠른 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고, 아놀드는 제 자리를 가만히 지켰다.

한없이 견고하고 한없이 거대하던 아버지의 어깨가 미약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것은 아놀드의 몫이었다.

정신없이 침실로 돌아온 델시아는 문에 등을 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발발 떨렸다. 거센 비라도 맞은 듯 정신이 몽롱했다. 엉망이 된 얼굴을 한 채 허공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죄책감을 삼킨 델시아가 비칠거리며 일어났다.

힘겹게 창가로 걸어간 델시아가 밖을 쳐다봤다. 가문 소속의 기사들이 연습하는 소리가 건물 너머로 흘러들어왔다.

연무장에 얽힌 에드윈과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예쁜 추억들을 기억한 채, 델시아는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그 소중한 것들을, 예쁜 추억들을 심장에 담아, 에드윈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델시아는 서늘한 바람에 팔뚝을 문지르며 밖을 쳐다봤다.

다시는 이 광경을 못 본다는 생각에, 추위에 떨면서도 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창밖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입에 걸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델시아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다. 창밖을 확인하니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싸늘한 새벽 공기에 델시아는 두툼한 숄을 두르고 침실을 나섰다. 사용인들은 일찍이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는 중이었다.

“어, 아가씨.”

“호머.”

하녀들이 사용하는 방을 보수하려 물건을 챙겨 움직이던 호머가 걸음을 멈추고 델시아를 봤다.

새하얀 숄을 두른 저택의 유일한 아가씨는 오늘따라 더 위태롭게만 보였다.

호머는 걱정하는 낯을 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응, 나 괜찮아. 무거울 텐데, 가서 일 봐.”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델시아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호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델시아의 말을 따르면서도 걱정하는 기색을 지울 수 없었다.

이윽고 호머가 델시아를 지나쳐가고 델시아는 기다란 복도에 혼자 남겨지게 됐다.

아래층과 위층의 곳곳에서는 사용인들이 움직이는 소리,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사용인들의 말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델시아의 귓가에 그 일상의 소리가 증폭되어 들렸다. 델시아는 잠옷 차림으로 저택 안을 거닐며 저택 곳곳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용인들과 수다를 떨다가 나온 엘라와 마주치기 전까지 말이다.

“어머, 아가씨!”

델시아의 차림을 보고 놀란 엘라가 서둘러 델시아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줄을 당기지 그러셨어요.”

놀람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델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괜찮아.”

“그래도요!”

침실로 들어온 델시아는 엘라의 채근에 목욕하고 치장하며 가라앉은 눈을 했다.

항상 햇살 같았던 제 주인의 눈동자에 이런 감정이 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엘라는 델시아의 머리카락을 빗기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너무 힘주지 않아도 돼.”

“네, 조금만 힘줄게요.”

“…엘라.”

“네, 아가씨.”

머리카락을 치장하기 시작하는 엘라를 부른 델시아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고마워.”

“아가씨도 참.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하다는 말에 델시아가 시선을 떨어트렸다.

그 당연했던 것들을 하나둘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저기...엘라, 오늘 손님이 오실 거야.”

“손님이요?”

“응.”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미안. 잊고 있었어.”

“중요한 손님이에요?”

“…응. 귀한 손님이 오셔.”

에드윈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실 손님.

속으로 덧붙인 델시아가 잠자코 엘라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다 됐어요, 아가씨.”

허공을 응시하던 델시아가 엘라의 말에 눈을 깜박였다.

델시아는 자리에서 찬찬히 일어나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추어 봤다. 엘라의 손길이 닿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구불거렸다.

델시아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있던 노란색의 나무 인장이 흐려지고 있었다.

인장이 모두 사라지면 비안나가 찾아오는 것일까.

비안나에게 시간까지 고지받지는 못한 델시아는 그런 추측을 하며 침실을 나섰다.

엘라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아침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식당에 들어선 델시아는 복잡미묘한 시선으로 내부를 둘러봤다.

델시아가 좋아하는 식물과 장식물이 들어서 있는 식당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렸다.

한때는 델시아의 흔적과 델시아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긴 흔적이 한곳에 모여있다는 게 얼마나 벅찼는지.

과거의 조각을 떠올린 델시아가 입꼬리를 올려 웃고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는 아직이었다.

그들의 자리를 눈에 담은 델시아가 일순 쪽빛 눈동자를 우울하게 늘어트리고는 식탁을 가만히 응시했다.

좋지 못한 어제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잔류하고 있었다. 씻을 수 없을 죄책감까지도.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델시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몹시 피곤한 얼굴의 아놀드를 볼 수 있었다.

고작 하루 새에 아놀드의 얼굴이 상했다.

델시아는 그 원인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다.

“…어, 델시아. 좋은 아침.”

아놀드는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델시아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말아 올렸지만, 웃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라앉은 얼굴에 입꼬리만 올라가 괴기한 모습으로 보였다.

의자를 빼내어 앉은 아놀드에게 델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다.

깰 수 없는 침묵이 둘 사이에서 흘렀다.

그 침묵을 깨는 용기를 낸 것은 아놀드였다.

“저기, 델시아.”

“…응.”

“음... 그럼 너를 다시는 못 보는 거야?”

“...”

아놀드의 물음에 델시아가 시선을 끌어내렸다.

현실을 다시금 마주했다는 사실에 순간 시야가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듯했다.

잠시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을 주저하던 델시아가 가느다란 음성을 내뱉었다.

“응.”

아마도 그럴 것이다.

대답을 마친 델시아가 아놀드의 시선을 피했다.

저와 똑같은 쪽빛 눈동자를 한 아놀드가 보내는 따가운 시선을, 간절한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아니, 자격이 없었다.

페르도 백작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에서 빠졌다. 그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집사가 찾아와 전한 소식에 델시아는 얼굴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도 아침 식사에서 빠진 적이 없었던 페르도 백작이었기에, 델시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제 나눴던 상처뿐인 대화들이 뇌리에 스치며 포크를 그러쥔 델시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델시아는 소스와 버무려진 과일 샐러드를 접시에 가져왔다. 하지만 포크로 짓누를 뿐 입에 대지는 않았다.

델시아의 포크에 사과가 뭉개지고 오렌지가 과즙을 흘리며 뭉그러졌다. 이내 델시아의 접시에는 심란의 잔해만이 남게 됐다.

그녀를 가르친 에스테반 공작부인이 봤다면 예절에 어긋난다며 꾸짖고도 남았을 모습이었다.

상념에 젖어 들다가 결국, 에스테반 공작부인까지 떠올린 델시아가 민망한 얼굴로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 주변을 닦았다.

아놀드는 아침 식사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델시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식기를 내려놓았다.

깊고 고요한 쪽빛 눈동자에 물기가 들어찼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며칠 새 야윈 동생의 몸이, 가라앉은 표정이, 메마른 눈동자가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다.

바보 같은 아놀드, 멍청한 아놀드.

자신을 책망하는 아놀드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동생을 보며 아놀드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아, 내 동생은 내가 원망스럽겠구나. 눈을 마주치기도 싫을 만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차자 아놀드의 몸이 덜덜 떨렸다. 눈앞에서 저를 위해 몸을 날리던 델시아의 약혼자, 에드윈의 모습이, 비열한 웃음을 머금고 있던 적군의 흑마법사가.

절망적인 기억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은 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매일 밤을 악몽으로 지새우는 아놀드에게는 사실 그 모든 기억보다도 저를 외면하는 여동생의 태도가 더 괴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여동생의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갈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도 아놀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데에 일조했다.

“…델시아.”

식어가는 음식들을 멍하니 보던 델시아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눈을 껌벅이며 저를 부른 아놀드를 본 델시아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뜨였다.

그녀의 오빠, 아놀드가 얼굴을 일그러트린 채로 울음을 참고 있었다.

“오빠...”

상흔이 남아 있는 아놀드의 뺨을 타고 눈물방울이 흘렀다. 항상 다정하던 아놀드의 얼굴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고통을 체념한 사람처럼 절망적으로 보였다.

아, 내가 또 오빠를 힘들게 했구나.

델시아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결국 또 아놀드의 무너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미안해, 오빠.”

얼마나 자신이 바보같이 보일까. 아버지를 슬프게 만든 자신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 모든 것에 작은 소리로 사과한 델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켜줄 테니까 편하게 식사해.”

델시아는 이내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쫓던, 괴로움으로 점철된 아놀드의 눈동자가 질끈 감겼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을 동생의 자리조차도 다시 볼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으므로.

의자에 앉은 아놀드의 몸이 비를 잔뜩 맞은 강아지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놀드는 울음을 크게 터트리지도, 고통을 버티지 못해 쓰러지지도, 델시아를 따라가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했다.

그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아놀드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다. 아놀드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견디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식당을 빠져나온 델시아에게 엘라가 다가섰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이 걱정스러웠다. 엘라는 델시아의 곁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근심 어린 낯을 했다.

“괜…찮아.”

반복되어 새겨지는 상처로 부어오른 것만 같은 마음을 다독이며 델시아가 대답했다.

델시아는 엘라를 뒤로한 채 아버지가 계실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 앞에 선 델시아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버지, 저예요.”

“…처리할 게 많아 만나주지 못하겠구나. 이따 찾아가마.”

“...네. 괜찮아요. 저번처럼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델시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페르도 백작은 절대 침실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일 때문에 바쁘다는 말도, 처리할 게 많다는 말도 모두 저를 피하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델시아는 알았다. 아니, 알고서 찾아온 것이었다.

잠시 숨을 뱉은 델시아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때 페르도 백작에게 제대로 된 문안 인사도, 부녀간의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침실로 향하던 델시아의 걸음이 우뚝 설 만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 손님이 오셨습니다.”

호머가 놀란 눈으로 알렸다.

손님이 왔노라고.

델시아가 기다리던 그 손님이 드디어 저를 찾아왔노라고.

호머의 말도 다 듣지 않고 접견실로 향하는 델시아의 걸음이 다급했다.

델시아는 제 아버지와 오빠까지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비안나를 보며 멍한 얼굴을 했다.

사용인들을 시켜 접견실까지 제 가족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혹여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 가족들이 반발하게 될까 봐.

“그럼 다 온 것 같으니까 설명할게.”

“…네.”

델시아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비안나를 응시하며 쉬이 반응하지 않았다.

“…나를 경계하는 건 이해해. 금쪽같은 딸의 심장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고 싶지 않겠지.”

“...”

“하지만 이미 불문율을 거스르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해. 계약 자체도 위험한데, 그 위험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건 더 위험하거든.”

“…하.”

“걱정하지 마. 당신 딸이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비안나의 말에 접견실에 있던 모든 이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뜨였다.

제게 주목된 시선에 어깨를 으쓱인 비안나가 별거 없다는 투로 말했다.

“델시아의 심장을 빼고 그 자리에 인공 마력 심장을 끼워 넣을 거거든. 잘 맞는다면 정해진 수명까지 거뜬히 살 거야.”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오?”

“얼마 안 가 죽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야. 마력이 과하게 많거나 과하게 적지 않은 이상은.”

설명을 들은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의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비안나를 보는 눈빛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조금 전의 설명으로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눈을 하게 됐으니 말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비안나가 델시아를 쳐다보며 눈짓했다. 에드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는 뜻을 알아들은 델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델시아의 뒤를 따르는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안나의 설명에 마음을 놓기는 했어도, 델시아가 그토록 염원하던 때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딸아이가, 자신의 동생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선택이 기어이 현실이 되었다는 건...

잠자코 뒤를 따르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쿵쾅대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에드윈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비안나를 안내한 델시아가 관 옆에 섰다.

유명 마법사의 마법으로 에드윈의 시신은 잠이 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다.

사용인들에게 부탁해 자신이 누울 침대를 미리 가져다 놓은 델시아가 비안나를 쳐다봤다.

“음, 흑마법이 남아 있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어.”

“부…작용이요?”

“심할 경우, 기억을 잃는다던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감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큰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게다가 흑마법까지 남아 있으니까...확률이 엄청 높아.”

비안나의 말에 델시아가 에드윈을 내려다봤다. 부작용까지는 미처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에드윈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에드윈은 물론 자신까지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잠에서 깨지 못한 채 어딘가에서 방황할 에드윈을 생각하니, 그 모든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델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내 이름 정도만 기억해준다면. 그 작은 것 하나만 기억해준다면.

델시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관 옆에 놓인 침대에 조심히 누웠다.

자신이 말을 하기도 전에 눕는 델시아를 보며 비안나는 혀를 찼다. 투명하게 보이던 델시아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었다. 비안나는 자신이 보고 있는 델시아의 미래가 그리 흐리지 않기를 바랐다.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는 델시아의 곁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눈을 감은 채로 있는 원망스러우면서도 속이 상하는 모습에, 그들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델시아.”

“괜찮아요, 아버지. 저, 안 죽는다잖아요. 오빠, 나 괜찮아. 심장만 바뀔 뿐이니까...괜찮아.”

“바보 같은...”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자 델시아는 눈을 떠서 그들을 따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갓난아이를 안심시키는 어머니가 된 것처럼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본 델시아가 다시 눈을 감았다.

이윽고 비안나의 손에서 강한 빛줄기가 뿜어져 나왔고, 알 수 없는 주문과 함께 방 안이 빛무리에 잠식되었다.

빠르고 정확한 기술로 델시아의 심장을 에드윈에게 옮긴 비안나가 인공 마력 심장을 만들 때였다. 그녀의 미간이 설핏 구겨졌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델시아 몸속의 마력이 강력했다. 마력 자체도 드센 데다가 그 양까지 방대하니, 인공 마력 심장을 넣는다고 해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비안나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흘리면서도 인공 마력 심장을 넣었다. 인간의 심장과 똑같은 모양의 인공 마력 심장은 델시아의 몸에서 비명이라도 지르듯 꿈틀거렸다.

흑마법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사그라들 것만 같은 마력이 그녀의 몸에서 흐르고 있었다.

마력 심장이 일 년만 버텨도 기적일 지경이었다.

욕지기를 뱉으면서도 델시아의 마력과 힘을 겨루며 심장이 자리 잡도록 도운 비안나가 심장에 마법을 걸었다.

내구성을 튼튼히 하는 마법을 걸기는 했지만, 그 마법이 유지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비지땀을 닦은 비안나가 마법을 끝마치자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빛들이 희미해지다가 이내 사라졌다.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가 서둘러 델시아의 모습을 살폈다.

“데, 델시아!”

“델시아!”

옅은 미소를 짓고 있던 델시아의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다. 힘든 사투를 벌인 탓에 델시아의 이마도 축축했다.

상아색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잇지 못하던 페르도 백작이 비안나를 쳐다봤다.

“어, 어떻게 됐소?”

“잘 끝났어. 둘 다 내일이면 일어날 거야.”

“델시아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소?”

페르도 백작의 물음에 비안나가 힘겹게 짓고 있던 미소를 거두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생각보다 마력이 강해.”

“그 말은...”

“인공 마력 심장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일 년만 버텨도 기적일 정도야.”

“...아.”

“마력 자체도 세고 그 양도 많아. 게다가 덜어낼 수도 없는 마력이야.”

그 또한 일전의 불문율을 어기는 행위였으니까.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린 비안나가 뒷머리를 긁적였다.

허망한 얼굴의 페르도 백작과 이미 절망한 채로 델시아만 붙들고 있는 아놀드를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멀쩡한 가족을 망가트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그...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 너희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말을 마치고 숲으로 돌아가려던 비안나가 우뚝 멈춰 서서 덧붙였다.

“남자는 집에 돌려보내는 게 좋을 거야. 기억을 잃었을 확률이 상당하거든.”

이윽고 비안나의 몸이 빛무리와 함께 사라졌다.

남은 건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의 절망이었다. 시한부가 되어버린 델시아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들의 절망.

그것만이 저택에 남았다.

“에드윈!”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여자가 에드윈의 손을 맞잡고 행복한 웃음을 터트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에드윈은 그 여자를 따라 웃으며, 그녀의 보폭에 맞춰 찬찬히 걸었다.

걸으면서도 에드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누구지?’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된 거지?’

여자를 붙잡고 묻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에드윈은 꿈속의 상황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에드윈, 오늘도 훈련 가요?”

“네. 훈련하는 동안 보고 싶을 거예요, -.”

입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상상도 못 할 문장을 내뱉는 게 정녕 자신이란 말인가.

게다가 조금 전 여자의 이름을 말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다. 결국, 에드윈은 눈앞의 희뿌연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기로 했다.

“약혼식이 다가올수록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쉴새 없이 삐악삐악 우는 병아리처럼 여자는 재잘댔다. 신이 난 아이처럼 큰 소리로 웃기도, 제 팔에 팔짱을 끼며 기대어 오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에드윈도 모르게 미소 짓는 순간, 따스했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곧바로 다른 꿈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번에는 자신이 전장에 있는 꿈이었다.

전장에서 에드윈은 검을 든 채 적군을 베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승리를 거머쥔 에드윈이 검을 높이 치켜들며 함성을 내질렀다.

아, 서부 변경의 전장인가. 에드윈은 그렇게 생각했다. 에드윈이 말을 타고 누군가가 기다릴 수도를 향해 가는데, 상황이 좋지 않게 흘렀다. 죽인 줄로만 알았던 흑마법사 하나가 눈앞에 나타나 마법을 외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발견해낸 에드윈은 성검을 빼 들고 흑마법사의 몸을 향해 달려가 그대로 찔러넣었다. 흑마법사는 에드윈의 검을 막느라 외던 주문을 포기하고 방어막을 급히 만들었다.

방어막에 튕겨서 제자리로 돌아온 에드윈이 검을 힘껏 쥐고 다시 한번 찔러 넣으려 마음먹었을 때, 빠르게 주문을 영창한 흑마법사가 비열하게 웃었다.

이윽고 흑마법사의 손끝이 아군을 향해 뻗어졌다. 놀란 에드윈이 고개를 돌려 흑마법사가 지목한 인물을 쳐다봤다.

아놀드 페르도였다.

원래의 에드윈이었다면 소수를 희생하여 악을 처단했겠지만, 꿈속의 에드윈은 달랐다. 그리 친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실력의 기사 하나를 지키려 몸을 날릴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아무리 꿈속이라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자신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굴 이유가 있던가? 이윽고 흑마법을 정통으로 맞은 에드윈이 아놀드의 앞에 쓰러졌다. 목전이 컴컴했다.

에드윈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아놀드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렸다.

“-을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흑마법사가 뜻밖의 수확에 미소 짓고는 재빨리 자리를 벗어났다. 더 머물렀다가는 아군의 마법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터였으니.

또다시 꿈이 조각났다.

조각난 꿈이 사라지자 강렬한 두통이 일었다. 에드윈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바르작거리다가 눈을 떴다.

“…아.”

잔뜩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드윈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자신의 침실이었다.

이상하게도 어딘가 낯선 느낌이었다. 무언가 없어진 것 같기도 했다. 에드윈은 앉은 채로 제 침실을 한참이나 둘러봤다.

그러나 낯선 느낌이 있기는 해도 무엇이 낯선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혼란스러움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 꿈도 혼란스러움에 한몫했다.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에드윈이 침실을 가로질러 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아아, 주인님!”

“…아, 테오.”

“이럴 수가...정말, 정말 주인님이 맞으시군요!”

집사, 테오였다.

테오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에드윈을 살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상할 정도로 저를 반기는 모습에 에드윈은 의아한 낯을 했다.

그것도 잠시, 테오가 내미는 일정표를 보며 헛숨을 들이켜야만 했다.

“모레 점심에 폐하께-”

이어지는 일정들에 얼굴을 찌푸린 에드윈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테오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에 안심하며 덧붙였다.

“주인님의 결혼식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영애께서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네?”

“내가 왜, 대체 누구랑 결혼하는지 묻는 거야.”

“...네?”

에드윈의 말에 테오는 입을 떡 벌렸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기에 당연히 델시아를 기억하는 줄로만 알았다. 델시아는 에드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테오는 하잘것없는 자신까지 기억하는 에드윈이 델시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다.

페르도 백작 가문의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억에서 지워진 것이 다름 아닌 델시아였다니.

테오가 본 에드윈은 정말 델시아를 모르는 것처럼 굴고 있었다. 에드윈의 눈동자에 피어있던 말간 생기가..., 없었다. 델시아를 만나며 피었던 생기가, 봄의 햇살과도 같았던 따스함이 눈동자에 남아있지 않았다.

“데, 델시아 아가씨를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뭐?”

테오의 음성이 높아졌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인 것 같았지만, 에드윈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해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일었다. 불쾌했다. 에드윈은 고개를 내저으며 통증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것보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예?”

“서부 변경에 있어야 할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에드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 물음에 테오는 번뇌해야만 했다. 어느 부분부터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다.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침대에 누워있는 델시아를 비췄다. 눈 부신 햇살이 델시아의 얼굴에 닿자 누군가 커다란 손으로 그늘을 만들었다.

페르도 백작이었다.

페르도 백작은 비안나가 약속했던 다음 날이 되자마자 델시아의 방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했던 다음 날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델시아는 미동조차 없이 누워있었다.

먹은 것도 많이 없어 배가 고플 텐데, 꿈속에서 맛있는 것이라도 먹느라 늦는 것인지.

페르도 백작의 입매가 바르르 떨렸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간헐적으로 심장에 나타났다. 페르도 백작의 심장을 주무르듯 나타난 불안감은 델시아의 편안한 얼굴을 보는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페르도 백작은 차라리 자신의 심장을 떼어 델시아에게 주고 싶었다. 일 년을 사는 것도 기적이라던 비안나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또다시 시한부가 되었다.

페르도 백작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델시아의 얼굴에 내렸던 그늘이 조금씩 흔들렸다.

페르도 백작은 흐느끼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숨을 삼켰다. 끅끅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방을 채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해주던 나의 행복이었던 아이가.

“왜, 왜 이러고 있는 게냐. 응? 델시아... 이 아비를…이 아비를 두고 대체-.”

채 잇지 못한 말이 목구멍 아래로 떨어져 집어 삼켜졌다. 쇳소리에 가까운 음성에도 델시아는 눈을 뜨지 않았다.

페르도 백작의 심장이 자꾸만 철렁했다. 한 점의 변화도 없는 말간 얼굴이 이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던가.

델시아의 편안한 저 얼굴이 이토록 미웠던 적이 있던가.

페르도 백작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델시아를 담는 눈의 시야가 흐릿했다. 희뿌연 시야 틈으로 델시아의 고운 얼굴이 보였다.

페르도 백작은 달달 떨리는 손으로 델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결 좋은 상아색 머리카락은 페르도 백작의 손길에 살랑살랑 움직였다.

어렸을 적에는 아니 최근까지도 이 손길에 미소를 지어주던 아이가 이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누워만 있었다.

“델시..., 어서 눈을 뜨렴. 이 아비의 속을 얼마나 더 태울 생각이냐.”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아놀드의 목소리에 페르도 백작이 서둘러 볼에 달라붙은 눈물을 훔쳤다.

“…들어오거라.”

문을 열고 들어온 아놀드는 눈 밑이 거무튀튀했다. 델시아 걱정과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점심이 지났으니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여 걸음한 아놀드는 작은 한숨을 뱉었다.

페르도 백작의 맞은편에 창을 등지고 선 아놀드가 델시아의 희멀건 얼굴을 보며 쓰게 웃었다.

“꼭…잠자는 공주 같네요.”

“…그렇구나.”

“아무리 단잠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에드윈이 좋아도 그렇지.”

넋두리하듯 우스갯소리로 떠들던 것은 어느새 작은 원망이 되어있었다.

“차라리 나를 원망하지. 차라리 내 심장을 내놓으라고 닦달하지.”

“…아놀드.”

“내가…그럼 내가 줬잖아.”

애초에 원망이라는 감정이 아놀드에게 존재했을까. 아놀드는 이불 위에 깍지낀 채로 얹어진 델시아의 손등을 매만지며 절망했다.

그때 델시아의 미간에 작은 주름이 생겼다. 이윽고 델시아가 뒤척이다가 눈을 떴다.

“데, 델시! 괜찮은 게냐! 아니, 아니지. 아픈 곳은 없니?”

“델시아, 괜찮아? 응?”

“...으음.”

느닷없는 질문들에 델시아가 앓는 소리를 흘리며 그들을 바라봤다. 갓 눈을 뜬 델시아의 눈에 절망과 안도가 공존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델시아가 눈을 느릿하게 깜박이다가 찡그렸다. 침실 안이 너무나 환하게 느껴졌다. 꼭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시야가 뿌옇고 흐릿했다.

바르작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던 델시아가 돌연 심장을 부여잡으며 헉헉거렸다.

“하…하아.”

호흡을 빠르게 하며 심장께를 움켜쥔 델시아가 창백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델시아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있었다.

“데, 델시!”

“델시아!”

델시아의 어깨를 하나씩 붙잡은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가 손을 바르르 떨었다. 몸 하나 제대로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심장 부근이 뻐근하다는 것을 느낀 델시아가 밭은 숨을 뱉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을 뿐인데, 전력 질주라도 한 사람처럼 진한 탈력감이 들었다.

“아, 아버지…, 오빠….”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잇는 델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작은 두려움이 속에서 움트고 있었다. 괜찮을 줄로만 알았던 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

제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손들이 없었다면 델시아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말을 잇지도 못했을 것이었다.

델시아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이, 이게...”

“오, 델시...”

델시아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의 눈시울이 덩달아 붉어졌다.

간신히 눈을 뜬 델시아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별로라는 것을 안 직후이기 때문일까, 그들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집안을 책임지는 가주로서의 체통도, 기사라는 그럴듯한 직위도 곧 죽을 것처럼 구는 가족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델, 델시아.”

빛나던 동생의 눈동자가 꺼멓게 죽었다.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 넣은 듯 반짝이던 눈동자가 빛을 잃었다.

자신 때문에.

델시아의 어깨를 그러쥔 아놀드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뼈대만 간신히 잡히는 야윈 어깨가 안타까웠다.

“흐, 흐윽.”

아놀드가 아랫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제 동생이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것조차 버거워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신처럼 튼튼하지는 않았어도 건강한 축에 속했던 델시아가, 반송장처럼 파들거린다는 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세게 깨문 아랫입술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송골송골 맺히던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에, 에드윈. 에드윈은요? 에드윈은…하아, 어떻대요? 네?”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는 숨을 뱉어내며 묻는 첫 마디가 에드윈의 상태라는 게, 가족들의 마음을 할퀴었다.

꺼멓게 죽은 눈동자는 에드윈의 이름에 반응하며 작은 빛 조각을 내보였다. 그 조각을 외면할 수 없었던 페르도 백작이 델시아를 품에 끌어안았다.

세게 건드렸다가는 부서지는 유리 장식품을 만지듯 파들거리는 손길이었다. 커다랗지만, 긴장으로 힘줄이 도드라진 손이 델시아의 머리통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델시아를 진정시키듯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듯 이어지던 손길이 잦아들었다.

“아델리오 공작은..., 살았다.”

“아, 아아... 다행이에요. 하, 하아. 정…말로요.”

살았다는 한마디에 델시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창백하게 질렸던 뺨에 붉은 기가 맴돌았다. 꼭 작은 꽃잎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페르도 백작은 눈을 질끈 감으며 델시아의 머리통을 쓰다듬었다. 델시아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다정한 손길은 계속됐다.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델시아는 오래 살 거라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되뇐 페르도 백작이 델시아를 침대에 눕혔다. 옅은 홍조가 도는 얼굴이 못내 원망스러웠다.

사랑스러운 딸이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에드윈의 생사를 확인하자마자 안도하는 제 딸이, 자신의 생이 얼마나 남은 줄도 모르고 안심하는 제 딸아이가.

정말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미안하구나, 델시. 처리할 일이 많아 가봐야 할 것 같다.”

“괜…하아, 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수프를 올려보낼 테니, 식사하거라.”

“네, 감사…해요.”

희미하게 이어지던 대답이 공기를 타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페르도 백작은 주먹을 꽉 쥐며 델시아의 침실을 나섰다. 걸음을 옮기는 페르도 백작의 뺨이 투명하고 뜨거운 눈물에 젖어있었다.

“오빠도 바쁠 텐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아니, 아니야. 하나도 바쁘지 않아, 델시아.”

무릎을 꿇고 침대에 팔을 걸친 아놀드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놀드는 델시아의 작은 손을 끌어와 제 손안에 넣었다.

따뜻하지만, 힘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손이 아놀드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작은 손이 너무나 어여뻐 아놀드는 차마 손을 쥐지도, 펴지도 못했다.

가만히 내려다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릴 뿐이었다.

우리 델시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 몫의 행운을 델시아에게 나눠주시기를.

작은 중얼거림은 바람이 되어 살짝 열린 창밖으로 흩어졌다.

“아가씨.”

엘라가 문을 두드리며 델시아를 불렀다. 고개를 돌려 문을 쳐다본 아놀드가 대신 답했다.

“들어와.”

“아, 아가씨.”

엘라는 수프를 든 채 문을 열었다. 그녀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다급한 걸음으로 델시아의 곁에 섰다. 델시아의 다정한 쪽빛 눈동자가 에드윈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저 눈동자의 빛이 스러질 말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았다. 엘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프를 협탁에 내려놓고 침을 꼴깍 삼켰다.

중죄를 고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을 배꼽 앞으로 모은 엘라가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델리오 공작님께서...”

“에드…윈이 무사하다며. 정, 하아, 말이지?”

“네, 무사하세요. 그런데….”

“엘라, 왜…그래?”

엘라의 눈이 질끈 감겼다. 엘라의 입술이 빠르게 사실을 뱉어냈다.

“기, 기억을 못 하신대요.”

“아..., 그 얘기라면 비안나에게-”

“다른 건 다 기억하시는데...아, 아가씨만요.”

“...음.”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델시아가 이어진 말에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에드윈의 모습이 뭉게뭉게 그려졌다.

싸늘한 눈동자, 서늘한 목소리.

그래도...이름 정도는 기억해주지 않을까.

짐작했던 사실이 현실이 되어 델시아의 눈앞에 던져졌다. 헛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품은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며 잦아들 정도로 잔혹한 현실이 말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그 예상이 막상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니 머릿속이 차갑게 굳는 듯했다.

“괘…괜찮아. 내 이름, 그래. 이, 이름 정도만 기억해준다면. 어, 어차피 각오했었으니까. 그러니까...괜찮아.”

각오. 그 단어가 벌어질 일들의 방비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습관처럼 중얼거렸던 알량한 각오가, 참혹한 현실에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델시아의, 아놀드의, 엘라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다.

아주 작은 기적, 그것만을 바랐을 뿐인데. 실낱같은 확률로 얻어걸릴 기적. 정말 그 하나만을 바랐을 뿐인데.

언제나 그렇듯 기적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내민 미약한 손을 빗겨나간다. 잡을 옷깃조차 남겨두지 않고.

\* \* \* \* \*

해가 진 창밖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심장을 주기 전 꾹꾹 눌러 담은 마음이, 페르도 백작가의 전경이 잘 전해졌을까.

우울한 상황에서도 델시아의 머릿속에는 에드윈을 향한 걱정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스스로 멍청이, 얼간이, 바보라는 단어를 내뱉어도 에드윈을 향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잘 쉬어지지 않는 숨을 어떻게든 뱉어내고, 조금만 움직여도 저릿저릿한 심장을 움켜쥐고 창문 앞에 섰다.

창틀을 잡은 델시아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는 창밖의 풍경은 실로 아름다웠으며 소중했다.

이 소중한 것들이 에드윈의 몸에서 뛰는 심장에 잘 남아있을까. 자신이 남긴 소중한 추억을 에드윈이 언젠가는 꺼내지 않을까.

그 언젠가가 다음 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델시아는 버틸 자신이 있었다. 에드윈이 살았다는 것. 그것이 델시아를 버티게 했다.

델시아의 몸이 비틀거리며 침대로 향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주저앉게 되어도 델시아는 웃었다. 심장이 몸에서 달아날 것처럼 뛰어대도 델시아는 행복했다.

델시아의 에드윈이 살았다는데, 멀쩡히 숨을 쉬고 똑바로 걷는다는데. 델시아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기억한다는데...

“…아.”

델시아의 뺨을 타고 눈물이 꾸역꾸역 흘러내렸다. 삼켜낸 줄로만 알았던 슬픔이 스멀스멀 몸집을 불렸다. 카펫 위에 주저앉은 델시아의 몸이 바르르 떨렸다.

입을 틀어막는 델시아의 손이 파들거렸다.

“으…흐윽. 흐, 으으윽.”

억눌린 흐느낌은 손가락 새를 비집고 나와 침실 안 공기에 녹아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기에 녹아든 흐느낌은 문에 나 있는 작은 틈새에 스며들지는 않았다.

귓가가 먹먹했다.

목이 메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가슴이...아팠다.

너무나도 아팠다.

델시아는 밭은 호흡을 내뱉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까지 향하는 동안 다리가 수십 번도 더 후들거리고 눈물방울이 수십 개는 더 흘러내렸다.

어렵게 침대에 당도한 델시아가 털썩 앉았다. 뺨으로 흘러내린 눈물을 손등으로 훔친 델시아가 침대에 옆구리를 대고 찬찬히 누웠다.

안정적인 자세였음에도 바들거리는 몸이 진정되지 않았다. 델시아의 몸이 완전히 진정되는 것은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때였다.

델시아는 고통으로 뒤범벅된 수마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빨려들어 갔다.

그렇게 지독한 새벽이 지나고 해가 하늘에 걸린 아침.

눈을 뜬 델시아는 창가를 쳐다보며 몸을 일으켰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았다. 그러나 이불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로 잠들었던 터라 몸이 조금 뻣뻣한 것 같았다.

“아가씨.”

엘라가 문을 두드리며 델시아를 불렀다. 델시아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봤다.

부드럽게 열린 문 틈새로 엘라의 얼굴이 쏙 나왔다.

“일어나셨네요!”

“...”

핼쑥한 얼굴로 해맑게 말하는 엘라의 모습이 델시아의 눈에 들어왔다. 힘없이 고개를 주억거린 델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다리에 힘을 줬다.

그러나 몸을 제대로 일으키기도 전에 침대 위로 다시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

델시아의 모습에 놀란 엘라가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엘라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델시아가 멍한 눈으로 엘라를 쳐다봤다.

“…엘라.”

“네, 아가씨.”

“…심장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

“...아가씨.”

“…이상해. 내 몸이…내 몸이 이상해.”

공허한 얼굴로 중얼거린 델시아가 이내 작게 실소하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침대의 기둥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델시아의 다리가 덜덜 떨렸다.

고작 하루 이틀 누워 있었다고. 고작 심장 하나 바뀌었다고. 고작...에드윈이 자신을 잊었다고.

사람이 이리 쉽게 무너질 수 있던가. 아니,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던가.

“엘라.”

“…네.”

“나…괜찮지?”

“...”

“하아, 나. 나, 정말 괜찮지?”

짧은 물음을 던지면서도 가쁜 숨을 뱉는 제 주인이 안쓰러워 엘라의 얼굴에 작은 그늘이 생겼다.

괜찮냐고, 정말 괜찮냐고 묻는 의중이 너무나 선연히 드러나 쉬이 대답할 수 없었다. 처연하게 떨리는 마른 등을 쓸어내리며 품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스스로 괜찮다고 중얼거리고 되뇌는 델시아에게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괜찮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구는 델시아의 몸을 부축하며 알량한 위로의 말을 삼켜낼 수밖에는 없었다.

엘라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침실 밖으로 나온 델시아의 몸이 돌연 누군가에 의해 들렸다.

“…아.”

“델시아.”

아놀드였다. 델시아를 품에 안아 든 아놀드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 내려줘.”

“미안.”

델시아의 요구에 작게 사과한 아놀드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착석해 있는 페르도 백작이 보였다.

“좋은 아침이구나, 델시.”

“...아버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가족들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델시아는 아놀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리에 앉고는 제 가족들을 쳐다봤다.

“배고프겠구나. 어서 먹자.”

“천천히 먹어, 델시아.”

“…네.”

다정한 말들이 하나둘 델시아에게 건네졌다. 떨리는 손으로 스푼을 든 델시아가 묽은 수프를 떠먹었다.

하지만 입안에 들어오는 수프의 양이 턱없이 적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오는 와중에도 수프가 질질 흘렀다.

그렇게 한 번 떠먹은 델시아의 속눈썹이 바르르 떨렸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력감이었다.

각오했다고 장담하던 자신이 가족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죄다 약하게 구는 모습이었다. 스푼을 세게 쥔 델시아가 오기로 한 번 더 떠먹었다.

조금 전보다 천천히 움직여 흐르는 수프의 양은 적었지만, 손은 여전히 바르르 떨렸다.

두어 번 더 떠먹던 델시아의 손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스푼을 내려놨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델시아가 제 손을 쳐다봤다.

가벼운 스푼 하나 쥐고 수프를 몇 번 떠먹었다고 바들거리는 꼴이 우스웠다. 입가가 움찔거렸다.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입맛이 없는 게냐.”

“…네.”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델시아의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들었다. 페르도 백작은 수심에 찬 눈으로 델시아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제 딸아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모른 체하는 게 아비로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슴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도 내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던 듯 구는 편이 딸아이에게도 나을 게 분명했다.

그래.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안 된다.”

“아, 아버지.”

식사 후, 델시아와 후원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페르도 백작의 얼굴이 엄했다. 차라도 한잔하며 무거운 기분을 전환하려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

“아델리오 공작이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는데, 대체 왜 그곳에 가고 싶다는 것이냐!”

“…확인하고 싶어서요.”

“무엇을.”

“에드윈이…에드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델시.”

피로감이 가득한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페르도 백작이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짙은 한숨이 델시아의 귓바퀴를 타고 들어왔지만, 그 안까지 당도하여 델시아를 설득해내지는 못했다.

다정하던 제 아버지의 얼굴은 수심에 차고, 자상하던 목소리에는 탄식이 섞였으며, 당당하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생겼다.

그 모든 게 델시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가족들의 곁에 계속 있다가는 못난 꼴만 보이고 바보 같은 짓만 할 것 같았다.

차라리 자신을 보며 괴로워할 가족들을 피해 떠나고 싶었다. 에드윈의 저택에 있는 별채는 델시아를 위해 꾸며진 곳이었으니까.

에드윈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의 별채에 머무르고 싶었다. 언젠가 이 심장에 익숙해지고, 에드윈이 자신의 존재에 익숙해질 때까지.

에드윈이 저를 다시 기억해줄 때까지 있고 싶었다.

“델시아노르.”

“…네, 아버지.”

“너는...네 상태가 어떤지는 끝까지 묻지 않는구나.”

“...”

“정녕 부모 앞에서 네 목숨보다 아델리오 공작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냐?”

페르도 백작이 델시아를 쳐다보며 물었다. 델시아는 섣불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언제나 저를 걱정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연인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맞았지만, 그런 걸 제 아버지에게 말할 만큼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지고 페르도 백작의 입술이 무겁게 달싹였다.

“델시아..., 지금 너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 이건 잠시 적응하느라-”

“잠시? 적응?”

델시아의 변명에 매서운 질책이 쏟아졌다.

“네 몸이 그 심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적응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델시아노르 네가 일 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그 심장이 네 마력을 버티지 못한다는데!”

“…아버지.”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셈이야. 언제까지 이 아비의 마음을 후벼팔 셈이야!”

달달 떨리는 목소리가 노기를 띠었다. 그를 설득하려던 델시아는 페르도 백작의 말에 멍한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발, 델시아. 더는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다오. 너를 두고 먼저 떠난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가, 제가 일 년도 살지 못한다고요?”

델시아의 동공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심장을 포기한 델시아의 손에 쥐어졌던 작은 희망인 인공 심장이 쪼그라드는 게 눈에 아른거렸다.

아, 아...

힘없이 입을 벙긋거린 델시아가 시선을 떨어트렸다. 찻잔 손잡이를 매만지던 손끝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에 머물렀다.

인공 심장이 뛰는 부근에 손을 가져다 댄 델시아가 고동소리를 가만히 느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심장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뛰는데..., 분명 잘못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는데. 대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나는...”

나는 그저 에드윈과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쁘게 장식되었던 꿈이 저편으로 스러지는 듯했다. 꿈꿔왔던 아름다운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서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다.

에드윈이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미워졌다. 생에 미련이 너무나도 남았다.

그런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게 자신의 현실이란다. 일 년, 일 년...

일 년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던 델시아의 눈이 돌연 감겼다. 이내 비정한 현실을 힘겹게 받아들이던 야윈 몸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말, 이 모든 게, 꿈이었다면.

의식이 아득해져 가는 와중에도 델시아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정말로 꿈이었다면.

무의식 어딘가에 홀로 선 델시아의 눈앞에서 뭔가가 아른거렸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쁘게 웃고 있는 에드윈이었다.

델시아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꽃이 피어오를 것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델시아가 손을 뻗었다. 점점 멀어지는 그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를 따라간다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에…드윈.”

혼절한 델시아의 창백한 입술이 달싹거렸다. 그것을 듣는 페르도 백작의 마음이 넝마가 되어 진창에 굴렀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 연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델시아의 모습이 페르도 백작의 눈에 들어왔다. 다급히 델시아를 들어 안고 침실로 향하는 와중에도 성난 숨이 나올 정도로 속이 상했다.

씨근덕거리며 숨을 뱉은 페르도 백작이 델시아를 침대에 눕히고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엘라를 통해 호출한 의원이 도착하여 막 방문을 두드리는 참이었다.

“페르도 백작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오. 이런 일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건만.”

“괜찮으신지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영애의 상태 먼저 살피겠습니다.”

페르도 백작의 안색을 보며 걱정한 의원, 덱스가 델시아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가지고 온 도구들로 델시아를 진찰한 덱스의 고개가 갸웃거렸다.

기본적인 진찰상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일전에 백작 부인이 마력 고갈로 운명을 달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덱스는 가방에서 마력 측정기를 꺼냈다.

혹시 모르니 델시아가 보유한 마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마력 측정기는 대상자의 심장 근처에 내려놓기만 해도 마력의 양과 움직임이 대략 보여 유용한 도구였다.

측정기를 델시아의 심장 부근에 놓으려던 덱스의 얼굴이 일순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채 올리기도 전에 방대한 마력을 느낀 측정기가 요동치며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구의 형태를 띤 측정기가 꿀렁거리며 움직이다가 이내 쩍, 하는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

덱스가 진찰 전에 치켜올렸던 안경이 묻어나오는 땀에 미끄러졌다. 소매로 땀을 벅벅 닦아내고 안경을 다시 낀 덱스가 페르도 백작의 눈치를 봤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페르도 백작의 표정은 고요했다. 그 모습이 덱스를 더 긴장되게 했다. 꼭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한 바다 같은 모습이어서.

하여 폭풍이 들이닥침과 동시에 거세질 풍랑이 걱정됐다. 침을 꿀꺽 삼킨 덱스가 천천히 몸을 돌려 페르도 백작을 쳐다봤다.

덱스는 손에 든 마력 측정기를 페르도 백작에게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마력 측정기가 부서져서 더 이상의 측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 델시아의 마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소. 다른 곳은 어떤가?”

“진찰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작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마력 측정기가 손상될 정도로 강한 마력을 지녔다는 게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지라...”

“셀레나의 마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페르도 백작이 덱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군.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야. 이만 가봐도 좋소.”

“예…. 다음에는 좋은 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묵례한 덱스가 진찰 도구를 가방에 넣고 침실을 나섰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델시아를 본 페르도 백작이 쓴웃음을 지었다.

- 에드윈이…에드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걸 확인할 겨를은 있으면서, 제 몸을 돌볼 생각은 않다니.

제 딸아이였지만, 고집불통에 한 방향밖에 모르는 순 바보였다. 델시아는 일전부터 그래왔다.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열중하면 주위는 둘러보지 못했다. 그 때문에 페르도 백작은 항상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주변을 살피고 신경 쓰는 것 또한 앞을 향해 정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작금에 와서야 델시아에게 문제를 알려줘 고치도록 종용하지 못했다는 게 후회됐다. 페르도 백작의 커다란 손이 델시아의 손등에 얹어졌다. 델시아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 체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이 페르도 백작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언제 죽음이 델시아를 앗아갈지도 모르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연인에게 가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할 만큼 아델리오 공작이 좋은 것인지.

머릿속으로 델시아가 했던 말을 곱씹는 페르도 백작의 얼굴이 체념으로 차갑게 식었다.

“…그래, 델시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는 혹자의 말이 크게 와닿았다. 부모인 페르도 백작은 제 딸 델시아의 뜻을 뒤집을 수 없었다.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비수가 박혀 고통스러워도 숨기는 수밖에는.

물론 자신의 목숨보다도 제 연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델시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부모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당연했고.

하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는 게 나을 지도 모른다. 혹시 알겠는가. 기억을 되찾은 아델리오 공작이 델시아를 살려내려 백방으로 뛰어다닐지.

미약하게나마 희망을 품은 페르도 백작이 눈을 감았다. 델시아의 손등 위에 포개진 커다란 손이 떨렸다.

페르도 백작은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소중한 아내 셀레나를 잃었던 것처럼 제 딸아이마저 또 잃게 될까 봐.

먼저 떠난 셀레나에게, 만민을 굽어살펴주시는 주신에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청을 올릴 만큼이나 절박했다.

딸을 먼저 보낼 자신이 없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어떠한 소리로 남지도 못하고 페르도 백작의 마음에서만 머물렀다. 델시아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도록 고요하고 잔잔하게.

어스름한 달빛이 창가를 투과하여 들이닥칠 때 델시아는 일어났다. 보랏빛이 감도는 쪽빛 눈동자가 잠시 탁하게 뜨이나 했더니 금세 맑아졌다.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한 듯했다. 몸 곳곳에 차오르는 무력감을 지워내려 몸을 움직였다.

바르작거리던 델시아의 움직임이 곧 멈췄다. 손등에서 미묘한 무게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손등을 확인한 델시아가 희미하게 웃었다. 무게의 주인은 델시아의 자상한 아버지였다.

고집만 부리는 딸이 뭐가 예쁘다고 자신의 손등에 커다란 손을 얹은 채 함께 있어 준단 말인가. 그것도 피로감에 꾸벅꾸벅 졸면서.

“아버지.”

“...”

“…아버지.”

페르도 백작을 깨우고 싶었다. 불편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몸이 쑤시는 것을 잘 알기에. 하지만 델시아의 부름에도 페르도 백작은 말이 없었다.

고작 몇 번 불렀다고 벌써 심장이 버거웠다. 얼굴을 찡그리며 숨을 고른 델시아가 오래전에 부르던 호칭을 입에 담았다.

“아빠.”

‘아빠’는 페르도 백작이 퍽 흡족해하던 호칭이었다. 아버지보다 훨씬 정감 있고 단란해 보인다면서 말이다. 어렸을 적에는 자주 부르던 호칭이, 머리가 크고 나서는 줄었다. 예법을 공부하면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입에 붙어 굳어졌고.

“…델시?”

오랜만에 듣는 호칭에 페르도 백작의 몸이 움찔했다. 이내 가느다란 숨을 내뱉은 페르도 백작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저를 향한 델시아의 쪽빛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어여쁜 눈동자에 살짝 웃어준 페르도 백작이 웅얼거렸다.

“우리 꼬마 천사...”

“...”

몽롱한 눈을 끔벅거린 페르도 백작은 언젠가 상아색 머리카락을 곱게 땋아 천사 흉내를 내던 델시아의 모습을 떠올렸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흰옷만 입으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재잘대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커다란 손이 뻗어졌다. 페르도 백작의 손이 델시아의 작은 머리통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바닥을 간질였다.

“…부디 아프지만 말아다오.”

이미 늦은 바람이지만, 그랬기에 더 간절했다. 델시아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은 도저히 볼 자신이 없었다.

페르도 백작은 작은 숨을 뱉으며 델시아와 눈을 마주했다. 반짝이는 눈동자에 자꾸만 목이 멨다.

“델시…, 네가 그렇게 아델리오 공작의 곁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아버지.”

“그래, 그렇게 해라.”

“네?”

“보내주마. 가장 힘든 것은 너일 텐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지.”

페르도 백작의 허락에도 델시아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페르도 백작의 눈동자에 떠오른 슬픔이 보여서 마음이 못내 아팠다. 기절해 있는 동안 제 아버지가 했을 생각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델시아가 페르도 백작을 가만히 바라봤다. 어떠한 말도 그들 사이에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페르도 백작과 델시아는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지를. 희미하게 웃은 페르도 백작이 자리에서 일어나 델시아의 침실을 나섰다.

달이 하늘 가득 떠오른 날, 지어보인 웃음과는 달리 페르도 백작의 마음은 넝마가 되어 진창에 굴렀다. 그래도 괜찮았다.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델시아는 바빴다. 정확히는 델시아를 모시는 엘라와 사용인들이 바쁜 것이었지만.

델시아가 아무리 단출하게 가기를 바라더라도 챙겨야 할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페르도 백작이 사랑하는 딸에게 줄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구해온 귀한 장식품과 화려한 드레스, 액세서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소중한 물건을 몇 가지로 추려서 가져가는 것에 페르도 백작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리 없었고.

그런 이유로 필요 없는 것까지 하나둘 짐에 포함하자 양이 방대해졌다.

“…음, 아가씨.”

“응, 엘라.”

“아무래도 짐을 더 추려야겠죠?”

“…응. 그러는 게 좋을 것...같아.”

말을 잇던 델시아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힘겹게 의자에서 일어선 델시아가 엘라의 도움을 받아 걸음을 옮겼다.

엘라는 사용인들에게 적당히 눈짓하고는 델시아를 부축하며 아래층으로 향했다.

일 층으로 내려오자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가 델시아가 타고 갈 마차를 보며 서 있었다. 짐을 나르기 위해 활짝 열린 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는 뜨거운 햇빛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버티고 서 있었다.

“아버지, 오빠.”

그들의 뒤에 선 델시아가 살짝 웃었다. 희미한 목소리에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델시아가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엘라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장미꽃 장식이 군데군데 달려 델시아와 더 어울리는 드레스였다.

페르도 백작이 델시아의 눈동자 색을 생각하며 고른 옷감으로 디자인된 드레스였다. 그것을 알아본 페르도 백작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잘 어울리는구나, 델시.”

“처음 입어보는데...괜찮나요?”

“그럼. 네게 안 어울리는 옷이 있을 리 없다.”

페르도 백작의 말에 델시아가 멋쩍은 웃음을 짓고는 하려던 이야기를 꺼냈다.

“짐은 거의 쌌어요.”

“델시아, 정말 가는 거야?”

“…응. 미안해, 오빠.”

“울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우리...자주 볼 수는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자주…올게.”

얼굴을 찡그리며 심장께를 움켜쥔 델시아가 힘겹게 웃었다. 아놀드가 델시아의 조그만 머리통을 쓰다듬었다.

델시아의 머리카락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손바닥을 간질였다. 어릴 때는 델시아의 머리카락을 부러 망치고 도망가기도 했었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아놀드의 눈이 물기에 젖어 반짝였다. 토끼처럼 조그맣고 새하얗던, 그럼에도 또래보다 성숙했던. 그런 델시아가 어느새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아델리오 공작이 못살게 굴거든, 당장 돌아오거라. 알겠니, 델시.”

“네, 아버지. 그럴…게요.”

“덱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검진할 거란다. 테오에게는 미리 말해뒀으니, 네가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페르도 백작이 손에 쥐고 있던 자그마한 로켓 목걸이를 델시아의 목에 걸어줬다. 타원형의 로켓을 조심히 열어본 델시아의 눈동자가 동그래졌다.

상아색 머리카락, 쪽빛 눈동자.

아버지의 침실에 갈 때마다 볼 수 있었던 그림이 넣어져 있었다. 델시아의 엄마, 셀레나였다.

셀레나는 로켓 속 그림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매를 살짝 휘며 로켓을 매만진 델시아가 페르도 백작을 쳐다봤다.

“이건...”

“셀레나의 유품이란다. 줄곧 네게 주고 싶었건만..., 이런 때가 되어서야 주는구나.”

“어, 어머니가...”

“셀레나가 함께한다면, 가서 외롭지는 않겠지.”

델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매를 살짝 올려 웃은 델시아가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였다. 어머니가 함께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가씨, 다 됐습니다.”

“…아.”

“델시, 끼니는 거르지 말아라.”

“자주 와야 해, 델시아. 편지도 자주 보내고...”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는 델시아를 마차까지 데려다주면서 온갖 당부를 해댔다. 델시아가 미소를 잃을 정도로 당부하고 나서야 그들의 얼굴은 조금 편안해졌다.

그리고 마차가 출발하기 직전, 페르도 백작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델시, 네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나는 당장 달려가 너를 데려올 거란다.”

“…네, 아버지.”

“그러니 건강히…부디 건강히 있거라.”

“그럴게요. 아버지도, 오빠도...건강히 계세요.”

창문이 닫히고 말의 울음소리와 함께 마차가 출발했다. 먼지를 날리며 달려가는 마차를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으로 쳐다본 페르도 백작과 아놀드는, 마차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아버지.”

“그래.”

“어째서 허락해주신 건가요?”

“...”

아놀드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페르도 백작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이유를 말한다면, 아놀드가 이해할 수 있을까.

페르도 백작의 넝마가 된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까.

페르도 백작이 저택으로 걸음을 옮기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럴 가능성은 적었다. 아놀드는 부모가 아니었으니.

아델리오 공작 저택은 페르도 백작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멈춰 선 마차에서 내린 델시아가 엘라의 도움을 받아 몸을 바로 세웠다.

페르도 백작 저택만큼 커다란 저택이었다. 오랜만에 오는 곳이라 그런지 조금 낯선 느낌이었다.

일전에는 자주 왔던 곳이지만, 에드윈이 기억을 잃은 후로는 처음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저택의 입구에서 델시아를 발견한 테오가 손을 붕붕 흔들었다.

“영애, 여기입니다.”

“…테오.”

“주인님께서는 외출 중이셔서... 바로 별채에 가서 계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많이 야위신 것 같네요. 괜찮으신 건가요?”

테오가 걱정스러운 낯으로 묻자 델시아가 입꼬리를 올려 부드럽게 웃었다.

“네.”

델시아는 테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겨 별채 안으로 들어섰다. 델시아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며 온갖 장식품을 들인 에드윈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었다.

그 장식품들을 보며 작게 웃은 델시아가 침실에 들어갔다. 델시아와 에드윈이 함께 그려진 그림이 든 액자가 있었다.

저렇게 커다란 액자를 침대 맞은편에 서슴없이 다는 이는 에드윈밖에 없을 것이라며 웃어댔던 과거가 생각났다.

그때 에드윈이 무어라 했던가. 결혼하면 더 커다란 액자를 붙일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창피하다고 생각됐던 액자를 더 크게 보지 않아도 될 생각에 델시아는 안심했다. 그래. 정말, 정말로 안심했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가족들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온 곳이 가시밭이라도 델시아는 기꺼이 견뎌야만 했다.

침대에 걸터앉은 델시아가 테오를 바라봤다. 테오의 얼굴은 기쁜 듯 보였지만 퍽 안타깝게도 보였다.

“테오, 무슨 일…있나요?”

“예? 아,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만…, 영애가 걱정돼서요.”

“내가요?”

“음..., 주인님께서 전과 같지 않으시니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으실 테고…, 물론 거리가 가까워졌기에 주인님께서 기억을 되찾으실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테오.

나지막이 중얼거린 델시아가 양손을 허벅지 위에 포갰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니...하아, 괜찮아요.”

“영애,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숨이 조금-”

“…감기가 들어서요.”

“주인님께 당장-”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영애.”

“내 일이니 내가 책임질게요.”

테오를 향해 살짝 웃은 델시아가 엘라를 쳐다봤다. 델시아의 시선에 고개를 끄덕인 엘라는 테오를 데리고 침실 밖으로 나갔다.

간접적인 축객령에 당황한 테오가 연신 뒤를 돌아보며 델시아를 불렀지만, 델시아는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다.

그렇게 침실의 문이 닫히고 델시아는 혼자가 되었다. 숨을 천천히 고르던 델시아의 잇새로 작은 신음이 흘렀다.

“하…하아.”

뒤이어 기침이 나왔다. 침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기침을 크게 한 델시아가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원래대로라면 에드윈과 함께 누워 시간을 보냈을 침대였다.

델시아의 공간에 찾아와 영광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에드윈과 함께 누워 있었을 침대.

너무 넓어 더 외로운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자니 슬픈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에드윈을 향한 그리움만 가슴에 덧씌워질 뿐이었다.

델시아는 언젠가 제 곁으로 와 웃어줄 에드윈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에드윈.”

꽃을 한 아름 안고 저를 향해 웃는 에드윈. 5월의 햇살보다 더 찬란한 에드윈. 델시아의 에드윈.

“주인님, 별채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

“…페르도 백작님의-”

“…테오.”

에드윈은 점심부터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횡설수설하는 테오를 짜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어딘가 불안한듯 테오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떨리고 있었다.

안 그래도 처리할 일이 많아 바쁜 에드윈에게는 더없이 성가시고 거슬리는 행동이었다.

“내 저택에 올 귀한 손님이 대체 누구지.”

“그게-”

“그만. 별로 듣고 싶지 않군. 네가 과장할 정도로 귀한 손님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델시아의 이름을 꺼내려던 테오는 단칼에 저지당한 채 멍한 눈을 해야만 했다. 오늘의 에드윈은 평소보다 더 까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드윈은 안토 백작의 연락에 급히 갔건만, 우스운 꼴만 보고 왔다.

대낮부터 이상한 곳을 데려가려고 하지를 않나, 자꾸만 귀한 물건을 들이밀지를 않나.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경험이었다.

얼굴을 찌푸린 에드윈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숨을 천천히 골랐다. 책상 위에는 상당한 양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전장에 있을 때 처리하지 못한 일감들이었다. 며칠간 열심히 처리한 것 같은데도 아직 많이 쌓여 있었다.

처리가 급한 서류뭉치를 뒤적인 에드윈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이내 집무실에는 펜촉이 사각사각 미끄러지는 소리밖에 남지 않았다. 얼굴을 찌푸린 채 높이 쌓인 서류들을 처리해나가던 에드윈의 손이 돌연 멈췄다.

“그런데 테오.”

“네, 주인님.”

“내 별채에 왜 허락도 없이 손님을 들였지?”

“기억을 잃으시기 전에 허락하셨던 일입니다만...”

“아,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미심쩍은 얼굴로 되묻는 에드윈의 눈치를 보며 대답한 테오는 자꾸만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는 델시아의 이름을 삼켰다. 제 주인과 함께 단장한 별채에 홀로 있을 델시아의 모습이 눈에 훤했다.

델시아는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테오는 델시아를 본 순간 알 수 있었다. 분명 에드윈이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에 밤잠은 물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볼이 움푹 패고 가늘던 손목은 더 가늘어졌다. 게다가 말을 잇는 것마저 버거워하지 않던가. 테오는 건강하던 델시아의 모습이 변했음에 약간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에드윈의 귓가에 그녀의 이름을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속삭였다면 결과가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

에드윈의 화를 받아내기 싫어 애써 외면했던 것이 못내 미안했다. 차분히 숨을 고른 테오가 모르는 척 말을 덧붙였다.

“페르도 백작님은 안 찾으시는 건가요?”

“…페르도 백작은 왜.”

“근래 들어 안 찾으시는 것 같기에...”

“생각해보니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어서.”

“…네?”

테오가 당황한 눈으로 반문하자 에드윈이 고개를 내저었다.

“됐어, 피곤하니 나가 봐.”

“아직 처리하실 게 많은데, 벌써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옆에서 조잘대니까 하기 힘들군.”

“핑계도 많으십니다.”

투덜거린 테오는 델시아의 이름을 속살대려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집무실을 나와야만 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에드윈은 서류를 처리해나가며 불쾌한 얼굴을 했다.

“페르도 백작의 얼굴만 떠올려도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지.”

작게 중얼거린 에드윈이 제 뒤에 놓인 성검, 파시오를 쳐다봤다. 이런 때면 파시오가 무어라 중얼거렸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전쟁에 나갔을 때만 해도 파시오가 시끄러워 견딜 수 없었던 것만 같은데. 근래 들어 파시오는 조용했다.

불러도 대답도 없었고.

“나한테 삐진 건가.”

삐질 이유가 있던가.

고개를 갸웃거린 에드윈이 어깨를 으쓱이고는 서류를 마저 처리했다.

다음 날이었다.

에드윈은 가볼 곳이 있다며 저택을 나섰고, 테오만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급할 뿐이었다. 오늘 아침에 봤던 델시아의 얼굴이 얼마나 안타까웠던가.

테오가 가진 죄책감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초조한 얼굴로 집무실을 돌아다니던 테오가 결심한 듯 서류 뭉텅이를 들고 별채로 향했다.

마주치는 사용인들이 의아한 얼굴로 물어왔지만, 테오는 바빠서 못 들은 체하며 걸음만 옮겼다.

델시아가 있을 별채 안에 들어선 테오는, 별채 안에 딸린 작은 집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들고 있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얼마 있지 않아 에드윈이 돌아올 것인데, 그때 해야 할 업무가 별채에 있다며 핑계를 댈 생각이었다.

에드윈과 델시아가 우연을 가장하여 만난다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테오의 입가에 뿌듯한 미소가 그려졌다.

살금살금 별채를 나선 테오는 본관의 집무실에 있는 서류를 전부 치웠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혹여 못 알아볼까 힘주어 쓴 테오가 휘파람을 불며 집무실을 나섰다. 에드윈이 업무에 사용할 펜도 테오가 챙겼다.

별채 집무실에만 틀어박혀 정말 업무만 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되니까. 여분의 펜을 찾으려 별채를 살피다 델시아가 있는 방의 문을 열어야 무언가 진전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펜을 주머니에 넣자 양심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에드윈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테오는 잠시 일이 있다며 도서관으로 쏙 내뺀 후였다.

제 집무실에 들어선 에드윈은 집무실에 있어야 할 서류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며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테오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빠르게 읽어내린 에드윈이 얼굴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분 전환하실 겸 이번 업무는 별채의 집무실에서 처리하시죠! -테오-”

“빌어먹을.”

시키지도 않은 짓을 벌여 애먼 걸음을 하게 만들다니. 분신처럼 여기는 성검을 챙긴 에드윈이 빠른 걸음으로 별채에 들어섰다.

한숨을 내쉬며 별채의 집무실로 들어온 에드윈이 책상 앞에 앉았다. 서류 한 뭉텅이가 에드윈을 기다리고 있었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에드윈은 집무실에 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를 악물었다. 다시 본관까지 걸음 하기에는 귀찮았다.

별채를 뒤진다면 펜 하나 정도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에드윈은 피로한 숨을 뱉으며 별채의 방을 하나씩 열어 펜을 찾기 시작했다.

주인도 없이 비워진 방이 많았다. 과거의 자신은 무슨 이유로 별채를 꾸미는 데에 큰돈을 썼던 것일까.

문을 하나하나 열며 그런 의문이 들었다.

“…대체 무슨 짓거리를 벌인 거야.”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인지, 쓸데없는 일을 벌인 테오를 향한 것인지 모를 말이 혼잣말처럼 나왔다. 에드윈이 이를 으득 갈며 마지막 문을 활짝 열려고 할 때였다.

“헉, 헉. 주인님!”

“무슨 일이지?”

“켈리안 후작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없이?”

“예. 돌려보낼까요?”

시종이 땀을 닦아내며 묻자 에드윈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알현실로 안내해라. 금방 갈 테니.”

“예, 알겠습니다.”

시종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에드윈이 문고리를 잡던 손의 힘을 풀었다. 그리고 집무실의 서류를 챙겨 본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진한 피로감이 들었다. 하루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리도 피곤하고 지치는 것인가. 에드윈은 이 모든 게 빌어먹을 테오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본관에 들어섰다.

그리고 집무실에 서류를 도로 가져다 놓고 케니안 후작이 기다릴 알현실로 향했다.

“오, 아델리오 공작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켈리안 후작.”

“하하, 전장에서 성검으로 적군을 베어내셨다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델리오 공작가의 저력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건만, 설마 이 정도로 성검을 자유자재로 다루실 줄이야!”

불쑥 방문한 것에 관한 사과는 없었다. 켈리안 후작의 몰상식함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던 에드윈이 숨을 삼키며 빈정거림을 참았다.

“그렇습니까.”

“이럴 게 아니라 성검의 귀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검이...”

습관적으로 허리춤을 만지작거리던 에드윈이 돌연 얼굴을 굳혔다. 성검을 별채 집무실에 두고 왔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수상한 손님을 두고 자리를 비우고 싶지는 않았다.

기대감에 젖은 켈리안 후작의 얼굴에 에드윈이 고개를 내저었다.

“이런, 성검을 두고 왔군요.”

“하하, 괜찮습니다. 다음에 볼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에드윈은 멋대로 다음을 기약하며 넉살 좋게 말하는 켈리안 후작의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어디까지 무례를 범할지 지켜보려는 심산이었다.

에드윈은 자리에 앉아 켈리안 후작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투자 그리고 지분에 관한 것들이었다.

“아, 마력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어있는 광산이 발견됐다더군요.”

“그렇습니까.”

“마침 매물이 나온다는데, 상태가 무척 좋다고 합니다.”

“음.”

켈리안 후작은 남부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새로운 광산을 두고 열변을 토했다. 지리적 이점과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번지르르한 말이 에드윈의 귓가를 간질였다.

자꾸 에둘러 말하는 태가 에드윈의 피로함을 가중했다. 무료한 얼굴로 고개만 주억이던 에드윈이 결국 야트막한 한숨을 내쉬며 켈리안 후작을 쳐다봤다.

“그래서 본론이 무엇입니까.”

“저..., 공작님께 투자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투자?”

“예, 그렇습니다.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귀족 중 하나인 아타즈 백작의 영지에 있는 광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어렴풋이 그 이름을 들었던 것도 같아 에드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켈리안 후작이 눈을 반짝였다.

“아타즈 백작은 그런 커다란 광산을 관리할 깜냥이 되지 않는다며 제게 권한을 맡기고 싶다더군요.”

“그렇습니까.”

“예, 매입을 먼저 권할 수 있는 작은 권한 정도지만요.”

“꽤 큰 권한처럼 보입니다만.”

“하하, 그렇게 큰 권한은 아닙니다. 그저 약간의 친분이 있어서 맡게 되었을 뿐. 아, 그래서 말인데...공작님께서 이 광산을 한 번 매입해보시겠습니까?”

“매입이라...”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광산 매입은 처음이시리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혹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본론을 꺼낸 켈리안 후작의 얼굴에 미소가 잔잔히 번졌다. 눈동자에 덧칠된 탐욕이 어울리지 않게 두른 겸손과 상충했다.

에드윈은 켈리안 후작의 기대감 섞인 눈빛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고작 권한을 맡았을 뿐인 사람이 이리도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아…, 고민이요.”

애매한 대답에 곤란한 듯 눈동자를 굴리던 켈리안 후작이 돌연 목소리를 낮췄다.

“실은 이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귀족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도에만 해도 벌써 여럿이지요.”

“그렇군요.”

“제가 전대 공작님을 동경해왔다는 사실은 아실 테지요.”

“음.”

“전대 공작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거래가 성사된다고 해서 제게 오는 이득은 없답니다.”

집요하게 매입을 종용하는 태가 수상했다. 거기에다가 거래가 무사히 성사되어도 후작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없다니.

그럴 리 없다. 켈리안 후작이 이득 없이 움직이는 이던가. 에드윈은 실소가 터지려는 것을 부단한 노력 끝에 참아낼 수 있었다.

에드윈이 표정을 굳힌 채 잠자코 있자 맞은편에 앉은 켈리안 후작의 속이 탔다. 후작은 잠시간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목을 큼큼 가다듬으며 자꾸만 설명을 덧붙였다.

“마력석의 희소성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 좋은 마력석은 보기 힘들다는 것 또한 잘 아실 테지요.”

비장한 눈을 한 켈리안 후작이 들고 온 검은색 주머니에서 주먹만 한 마력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보였다. 장인에 의해 가공된 푸른빛 마력석이었다.

즉, 물의 힘이 담긴 마력석이었다. 에드윈은 그 마력석을 눈으로 훑었다. 척 보기에도 높은 등급의 물건이었다.

저 정도 마력석 정도라면 거래 조건이 나쁘지 않은 이상은 매입할 만했다. 그렇다고 해서 켈리안 후작을 향한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에드윈은 성급하게 굴지 않고 켈리안 후작이 준비한 조건을 듣기로 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하, 관심이 생기신 거로군요. 다행입니다. 전체 매입과 부분 매입이 있는데 전체 매입은 이천 골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부분 매입은 일 년에 이백 골드씩 오 년이고요. 부분매입으로 십이 년을 채우게 되면 소유권이 생기는 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매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매입과 부분 매입...”

켈리안 후작의 말을 읊으며 고민하는 체를 한 에드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이 시간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럼요, 아델리오 공작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참. 그리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하하, 그럼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켈리안 후작이 여유롭게 웃으며 에드윈과 가벼운 악수를 끝내고 알현실을 나섰다.

알현실에 남은 에드윈은 켈리안 후작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롭게 짓던 표정.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켈리안 후작의 수를 읽었건만, 어쩐지 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쥔 채 알현실을 나온 에드윈이 성검을 찾으러 별채로 향했다. 별채로 가던 에드윈은 귓가에서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꼭 자신의 꿈에 찾아온 여자가 흘리던 것과 비슷한 웃음소리를...

보폭을 크게 하여 걷던 에드윈이 웃음소리를 더 듣기 위해 우뚝 멈췄다. 그 상태로 귀를 기울였지만, 애석하게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다시 걸음을 옮겨 도착한 별채의 집무실에서 성검을 찾은 에드윈이 아까는 미처 열지 못했던 문을 떠올렸다. 뒤이어 제 별채에 귀한 손님이 와있다는 테오의 말도 떠올렸다.

열어보지 못한 문 앞에 선 에드윈이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그리고 문을 활짝 젖히려던 찰나, 테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

“...”

에드윈은 이번에도 문을 열지 못했다. 미간을 찌푸린 에드윈이 저를 찾는 테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델시아는 별채 후원에 놓인 티테이블에 앉아 엘라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이는 태는 여유롭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아가씨, 어떠세요?”

“...엘라.”

“가끔은 외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쎄.”

“사실 저는 공작님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요. 공작님께서는 아가씨를 기억하지도 못하신다는데...”

엘라가 울상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가씨께서 상처받으시는 게 싫어요. 솔직히 기억을 잃은 공작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르도 백작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더 슬퍼요.”

“...”

엘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선을 끌어내려 찻주전자를 매만졌다. 화려한 꽃이 새겨진 찻주전자 또한 에드윈과 델시아가 고른 물건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사용할 찻주전자라며 제 주인 델시아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때를 떠올린 엘라의 눈이 서글퍼졌다. 델시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었다. 아델리오 공작을 한없이 사랑하고 좋아했다.

하지만 아델리오 공작은 아니었다. 그는 제 주인에 관한 기억은 모조리 잊고 말았다. 그런 자의 곁에 머물겠다는 제 주인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끝끝내 허락한 페르도 공작의 의중도.

엘라는 제 속이 타는 양 숨을 씨근덕거렸다. 아델리오 공작은 델시아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다. 그 모습에 상처받을 제 주인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엘라, 괜찮아.”

“아가씨...”

“항상 말하잖아.”

“...”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가씨는 아니잖아요.

엘라는 목젖까지 올라온 말을 삼켜내고는 델시아의 말을 못 들은 체했다. 델시아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좋게만 생각하려는 델시아의 모습은 도무지 당사자 같지 않았다.

처음에 듣고는 꽤 놀란 듯 보였으나 이내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초연하게 굴고 있지 않은가.

엘라는 제 주인의 심지가 곧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더 속상했다. 차라리 심지가 약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델리오 공작가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영애!”

엘라는 후원 끝에서 달려오는 테오와 그의 옆에 선 발레인을 발견했다.

“테오, 발레인.”

그들의 이름을 작게 읊은 델시아가 웃었다. 테오는 틈틈이 델시아를 찾아와 온갖 소식을 전해주고는 했다.

에드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에드윈의 기분은 어떤지, 에드윈의 상태는 어떤지.

델시아가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말이다. 이번에는 에드윈의 호위기사 발레인 또한 묵묵히 그 옆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델시아의 앞에 당도한 테오와 발레인이 가볍게 예를 갖추었다.

“영애,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하하, 전 한 게 없는걸요. 이번에는 발레인도 함께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아, 발레인. 오랜만이에요.”

델시아의 인사에 살짝 웃은 발레인이 이내 미소를 거뒀다. 델시아의 안색을 살핀 발레인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에드윈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델시아와 마주칠 때마다 괜찮으냐고 물어왔다. 델시아는 언제나 그렇듯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니까.

작은 욕심을 채우려, 가족의 상처를 외면하려 도망 왔으니 당연히 괜찮아야만 한다.

“주인님께서 저녁에 업무가 있어 바쁘시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테오, 그러지 않아도 돼요.”

테오가 하는 노력들은 고맙지만, 결코 바라는 것들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영애의 이름을 입에만 올려도 힘들어하셔서...”

“...그런가요.”

테오의 말에 잠시 놀란 눈을 한 델시아가 이내 수긍했다. 자신을 잊었다더니 정말 새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이름을 듣기도 싫을 만큼이나 말이다. 미워하게 된 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텐데.

이름 하나만 기억하길 바랐던 작은 바람은 끝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름부터 델시아의 존재까지 정말 새까맣게 지워버린 것이다.

“영애와 하신 약속, 가신 곳들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영애와 관련된 것만 쏙 잊으셨는지...”

“...”

이어지는 말에 델시아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멀쩡하지는 않아도 정상적인 것처럼 뛰던 심장이 뻐근했다.

잠시 밭은 숨을 토해낸 델시아가 목을 가다듬었다. 걱정이 담긴 테오의 시선이 닿는 게 느껴졌지만, 델시아는 미소 지으며 괜찮은 체했다.

자신과 관련된 기억은 모조리 잊었다는 사실에 조금 충격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했던 약속은 물론 갔던 곳, 추억까지 모두 잊었다는 사실에 못내 미련이 남았다.

“그,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애를 보신다면 금방 기억하실 거고, 결혼식도 무사히-”

“테오, 에드윈과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

“네?”

“에드윈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영애.”

테오가 당황한 낯으로 횡설수설했다.

“주, 주인님께서는 영애를 보시자마자 기억하실 테고 그럼 결혼식은 당연한 수순일 텐데 어째서 그러시는 건가요? 정말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주인님께 실망하셨다던가...”

“모두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끝난다면...영지로 돌아가서 쉬고 싶어서요.”

델시아가 지친 기색으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면서 조금 비틀거려 발레인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실의에 젖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딱 그 정도로만 보이면 됐다. 그 이상으로 힘들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 역시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테오와 발레인은 별채로 들어가는 델시아의 뒷모습을 보며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다. 특히 델시아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에드윈과 한 몸처럼 지내던 델시아가 어째서... 테오는 제가 비정한 일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울상을 지었다.

“어, 어쩌지. 발레인, 이제 어떡해?”

“...”

“뭐라고 말 좀 해 봐. 영애께서 정말 마음을 정리하신 것 같아? 응?”

“...너무 야위셨는데.”

“뭐?”

발레인은 델시아가 비틀거릴 때 순간적으로 잡았던 어깨를 떠올렸다. 손바닥에 닿았던 델시아의 어깨는 너무나 가늘었다.

델시아의 어깨를 잡은 것을 사과하는 것도 잊고 멍하니 손바닥을 내려다볼 정도로. 테오에게 나지막이 타박 당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이상해.”

“뭐가?”

“영애께서 원래 저렇게 마르셨었나?”

“주인님께서도 기억을 잃으시기 전에는 그 걱정을 달고 사셨어.”

“...그래?”

그제야 델시아가 들어간 별채에 박혔던 발레인의 시선이 거둬졌다. 그러나 머릿속에 피어오른 의문만큼은 그대로였다.

발레인과 함께 본관으로 돌아온 테오는 집무실로 향했다. 에드윈이 일감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테오는 뜻밖의 광경에 입을 벌렸다.

천하의 에드윈이 책상에 턱을 괸 채 졸고 있다니. 희귀한 광경을 마주한 테오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에드윈의 곁으로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주인님.”

“...”

“주인님.”

“...”

테오가 아무리 읊조려도 에드윈은 대답이 없었다. 깨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진한 한숨을 내쉰 테오가 책상을 손등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책상에서 느껴지는 울림에 얼굴을 찌푸린 에드윈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끔벅거리며 정면을 쳐다보던 에드윈은 잠이 덜 깬 채로 웅얼거렸다.

“…대체 누구지.”

“네?”

에드윈은 묘하게 슬프고 불쾌했던 악몽을 떠올렸다. 쪽잠이 들어도 알 수 없는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자는 나타날 때마다 뿌연 얼굴로 미소 짓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저를 원망했다. 자신이 무얼 했다고. 자신이 대체 무슨 상처를 줬다고.

게다가 악몽을 꾸고 나면 개운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 무거웠다. 에드윈은 지독한 악몽을 떨쳐내려 고개를 내젓고는 테오를 쳐다봤다.

“왜 그러고 있지.”

책상에 바짝 붙어 멍청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테오에게 짜증스럽게 물은 에드윈이 펜을 들었다.

“피곤하시면 쉬시는 게...”

“밀린 일이 많아.”

그 말을 끝으로 에드윈은 입을 다물었다. 테오가 무어라 물어와도 꾹 다문 채 열지 않았다.

침실로 돌아온 델시아는 침대에 누워 후원으로 나가기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무슨 일인지 별채에 방문한 에드윈이 자신이 있는 침실의 문을 열려고 했었다. 그때 자신과 에드윈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면 에드윈을 볼 수 있었을 테지만, 낯선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예의 차가운 눈동자.

델시아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눈동자를 마주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델시아는 에드윈에게 약하니까.

“엘라.”

“네, 아가씨.”

“에드윈의 기억이...돌아올까.”

“…그럼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에드윈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자신은 무사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차라리 에드윈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자신을 기억해낸 에드윈이, 자신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가씨?”

“응, 엘라.”

“시간이 늦었어요. 어서 주무세요.”

“다이어리만 쓰고 잘게.”

책상 앞에 앉은 델시아가 제 다이어리를 펼치며 말했다. 고개를 끄덕인 엘라는 너무 늦지 않게 자라는 말을 남기고 침실을 나섰다.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커다란 침실 안에서 델시아는 펜을 들었다. 글씨를 쓰면서 서로를 아로새기자던 에드윈과 맞춘 펜을 말이다.

다소 무게가 있는 펜을 쥐자 손이 발발 떨렸다. 그런데도 델시아는 글씨를 꾹꾹 눌러썼다.

“아빠와 오빠에게는 미안한 하루였다. 그리고 엘라에게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에드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에드윈과 함께했던 흔적이 아직 너무나 선연하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에드윈 천지였다. 에드윈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오다니!

이런 이야기를 아빠에게 했다가는 서운해하시겠지.

“오, 델시! 이 아비는 보이지도 않는 게냐!”

라고 하시며 머리를 짚으실 게 분명하다. 집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와 오빠가 보고 싶다.

특히 오빠에게는 더 미안하다. 나를 볼 때마다 울먹거리는데 오빠답지 않다. 어릴 때는 꽤 듬직했는데, 커서는 어리숙한 면만 늘어간다.

부디 아빠와 오빠가 나 없이도 잘 지내야 할 텐데. 자꾸 상처만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얼굴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나쁘고 이기적인 것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제발 가족들이 나를 미워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욕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에드윈도 날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리서 지켜만 보고 싶다. 이미 가까운 곳으로 오긴 했지만... (사실 에드윈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를 다시 안아줬으면 좋겠어.)

요즘 내 꿈에는 에드윈이 자주 나온다.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에드윈을 볼 정도였으니까, 말 다했지.

오늘도 내 꿈에 찾아와, 에드윈. 손잡고 하늘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려왔던 미래가 걸린 하늘을.”

델시아가 다이어리를 덮으며 지친 숨을 뱉었다. 글씨를 조금 썼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다는 게 너무나 이상했다.

다이어리와 펜을 책상 서랍에 밀어 넣은 델시아가 위태롭게 일어났다. 침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너무나 길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침대에 당도한 델시아가 힘없이 앉았다. 침대는 지친 델시아를 안전하게 받아냈다.

꾸물거리며 이불을 덮은 델시아가 자신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에드윈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또 한밤이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평온한 밤은 더 이상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델시아는 헐떡거리며 눈을 떠야만 했다.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새빨간 얼굴로 숨을 들이마시고 뱉기를 반복한 델시아가 이불을 꽉 쥐었다.

이불을 쥔 손에 강한 힘이 들어가 뼈마디가 새하얗게 드러났다. 손이 바들거릴 정도로 힘주어 잡은 델시아가 이내 가쁜 숨을 쉬었다.

“허, 허억... 하아.”

설렁줄 하나 당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헉헉거리며 씨름하던 델시아가 이내 지쳐 쓰러졌다.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수마에 빨려 들어간 델시아는 점심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아가씨!”

눈을 뜬 델시아는 울먹거리며 저를 부르는 엘라를 쳐다봤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닦아낸 엘라가 델시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괘, 괜찮으세요?”

“…엘라.”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델시아가 다른 손으로 제 목을 더듬거리며 눈을 끔벅거렸다. 어쩐지 목이 따끔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목소리가 왜...이러지.”

“아가씨, 당장 돌아가요. 네?”

“엘라.”

“제발요, 아가씨. 돌아가서 편하게 쉬세요. 이러다가는...”

말도 채 끝내지 못한 엘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델시아에게 애원했다.

저를 크게 걱정한 듯 보이는 엘라의 머리통을 쓰다듬은 델시아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가씨...”

델시아의 말에 엘라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언제나 건강하고 당차던 델시아는 어디로 간 것일까.

생긋 짓는 웃음이 못 견딜 정도로 사랑스럽던 제 주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

엘라는 델시아의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맞잡은 델시아의 손이 어제보다도 더 차가웠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델시아는 엘라와 수를 놓았다. 흰 손수건에 아델리오 공작가의 문양을 수놓던 델시아가 작은 신음을 흘렸다.

“...아.”

“아가씨, 바늘에 찔리셨어요?”

“조금. 괜찮아, 엘라.”

“수놓기는 이쯤 할까요? 아가씨께서 자꾸 바늘에 찔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오랜만에…해서 그래. 조금만 더 하자. 나 조금만 더 하면…완성해.”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은 델시아가 생긋 웃었다. 그 웃음이 과거와는 달라 엘라는 또다시 울컥했지만, 이번에는 무사히 삼켜낼 수 있었다.

엘라는 델시아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쳐다봤다. 아델리오 공작 가문을 상징하는 황금 사자가 수놓아지고 있었다.

엘라가 든 손수건에는 델시아가 좋아하는 보라색 장미꽃이 수놓아지고 있었다. 델시아를 위해 꽃잎 한장 한장을 수놓던 엘라의 눈시울이 자꾸만 촉촉해졌다.

“엘라, 잘 되어가?”

“네, 그럼요.”

엘라는 부러 활기차게 대답했다. 엘라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델시아가 웃음을 터트렸다. 고개를 돌려 엘라의 손수건을 확인한 델시아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아, 보라색 장미네.”

“네. 아가씨께서 좋아하시잖아요.”

“응, 에드윈도 좋아하는 꽃이야.”

모든 대화의 결론은 아델리오 공작이었다. 아델리오 공작과 델시아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지를 떠올린 엘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페르도 백작가에 시녀로 들어오기 전부터 델시아는 아델리오 공작과 연인 사이였다. 당시 엘라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그렇게 길고 절절한 연애는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었다.

엘라는 델시아와 있으며 아델리오 공작이 미소 짓는 것을 자주 봤다. 칼에 살이 베어도 피 한 방을 안 나올 것이라며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공작이 델시아에게는 미소를 지었다.

다가오는 이에게 내보이던 철벽을 허물고 말이다. 그랬던 공작이 기억을 잃고는 델시아를 보러 오지도, 찾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제 주인은 초연하고 차분했다. 그래서 공작이 더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을 속삭였는데 어떻게 그 상대를 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아가씨는 기억을 잃은 공작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으세요?”

“응.”

“제 연인이 그랬다면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엘라, 나는 에드윈이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어.”

“어떤걸요?”

내가 에드윈을 구했다는 사실을.

야트막한 숨처럼 흘러나온 말에 엘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요?”

“에드윈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가씨...”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어, 엘라.”

작게 대꾸한 델시아가 입을 꾹 다물었다. 델시아의 손수건이 점점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췄다.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사자의 갈기가 완성되고 성검과 검집이 차례로 완성됐다. 이내 황금색 실이 손수건에 촘촘하게 들어찼다.

“그거 공작님께 드릴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사냥 대회잖아.”

“아가씨는 참석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테오에게 부탁하려고.”

델시아가 완성한 손수건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다란 침실에서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꽃꽂이라던가 수놓기라던가, 하릴없이 공상에 빠진다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델시아는 일주일 동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은 얄궂었고, 델시아를 놀리듯 쉬이 흐르지 않았다.

가끔 너무 심심해서 후원에 나가기도 했다. 잔뜩 핀 보라색 장미를 보며 행복감에 젖어 벅찬 하루를 보내기도 했으며, 비 오는 풍경을 보다가 에드윈을 떠올려 흐느끼기도 했다.

에드윈의 따스한 품이, 다정한 목소리가, 자상한 위로가 그리워서. 가끔은 그 모든 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허상처럼 느껴져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내고 잡히지 않는 에드윈의 환영을 향해 손을 뻗는 것도 여러 번이었다.

전처럼 자다가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일은 없었지만, 자다가 에드윈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깬 적은 많았다.

실의에 젖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던 자존심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몸이 약해질수록 가지고 있던 자존심 또한 무너졌다. 알량하게나마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말이다. 참으로 비참하게도...

“고민해봤지만, 광산 매입은 어렵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온 켈리안 후작은 맥이 빠지는 답을 듣고야 말았다. 일주일 전에는 분명 마음이 동한 것처럼 보였는데.

켈리안 후작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덧붙였다.

“이, 이게 정말 좋은 매물이라 더 이상의 기회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매입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마력석 정도의 품질은 시중에서도 보기 어렵고..., 또 보시더라도 그 가격이 천문학적인-”

“켈리안 후작.”

차분한 목소리로 켈리안 후작을 부른 에드윈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간 고민 아닌 고민을 한 결과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봐도 구린내가 나는 권유였다. 전대 공작인 자신의 아버지를 동경한다는 이유로 좋은 매물을 넘겨준다니.

하여 달리 짚히는 구석이 없음에도 탐탁지 않아 거절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살 사람이 많을 매물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오셨는지 긍정적인 답을 못 들려드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작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 살펴 가십시오.”

켈리안 후작을 알현실 밖으로 이끈 에드윈이 악수를 하고는 집무실로 돌아갔다.

“이, 이...”

당혹감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작게 분노한 켈리안 후작이 걸음을 돌렸다. 오늘 에드윈과의 만남이 아니더라도 아델리오 공작 저택에 방문할 이유가 더 있었다.

가문의 마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간 후작이 주위를 살피고 마차 안에 올라탔다. 고개를 숙인 하녀 하나가 후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그때 시킨 일은 잘했느냐?”

“네,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창고는 잘 확인하지 않으시니 들킬 염려는 없습니다.”

“좋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안나라고 합니다.”

“그래, 안나. 이것을 받아라.”

켈리안 후작이 은화가 잔뜩 든 주머니를 안나에게 건넸다. 대충 세어봐도 사오십 개는 넘어 보였다.

상기된 얼굴을 한 안나가 고개를 연신 조아렸다.

“감, 감사합니다.”

“아직 할 일이 더 있다.”

“어떤...”

“델시아노르 페르도의 물건이 발견될 때마다 전부 치워라. 아델리오 공작이 절대로 기억할 수 없도록 말이야.”

“아...”

안나가 잠시 머뭇거리자 켈리안 후작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무엇을 고민하는 게냐? 어차피 공작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네가 들키는 날에는.”

“...”

“너 혼자만이 끝장을 보게 될 게다. 나는 네가 벌인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잡고 물어진다고 한들 별 성과도 없을 테고. 그러니 알아서 잘 처신해야겠지?”

“…예.”

차가운 분위기에 굽어진 안나의 어깨가 달달 떨렸다. 켈리안 후작은 안나에게 축객령을 내리고는 마차의 문을 닫았다.

이윽고 흙먼지를 날리며 켈리안 후작이 탄 마차가 출발했다. 안나는 마차가 있던 자리에 서서 겁먹은 얼굴을 했다.

은화 주머니를 든 손에 떨림이 있었다.

“호, 혼자...”

모든 것이 들키는 날에는 저 혼자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니.

은화 주머니를 품 안에 숨긴 안나가 종종걸음으로 저택 안에 들어왔다.

“안나, 어디 갔다 왔어?”

“어...? 자,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어.”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으, 으응. 나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창고 좀 정리해줄래? 저번에 보니까 엉망이더라. 하녀장님이 보신다면 한 소리 하실 거야.”

노라의 말에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향했다. 자신이 숨겨둔 물건이 있는 창고로 말이다.

차마 처리하지 못하고 창고의 가장 안쪽에 쑤셔 박은 그 물건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됐다.

청소 도구를 들고 걷는 안나의 눈동자에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돈이 오간 일에 관한 사명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났다. 에드윈과는 어떠한 접점도 없었다. 문 하나를 두고 마주했던 그 날 이후로 말이다.

테오에게 괜히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기는 했으나 델시아는 내심 바랐다. 우연히 에드윈을 마주치기를.

싸늘한 눈빛을 받더라도 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별채에 크게 걸린 그림이 아닌 진짜 에드윈을.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만 같았다. 다이어리에만 적을 정도로 작았던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

델시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밖을 보며 공상에 잠겼다. 공상에 매번 등장하는 주인공은 에드윈이었다. 그리고 배경은 꽃밭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릴 적 델시아와 에드윈은 많은 시간을 꽃밭에서 피크닉도 즐기고 낮잠도 즐기는 데에 할애했으니까 말이다.

그 기억이 자연스럽게 공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델시아는 억센 빗방울에 하나둘 떨어지는 장미 꽃잎을 보며 쓰게 웃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저와 같은 모습이었다. 곧 삶을 다하고 굵은 빗줄기 속에서 스러질 운명.

“아가씨, 춥지는 않으세요?”

“응, 딱 좋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번보다 더 마르신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별채에서 지내는 이 주일 동안 얻게 된 약간의 소득은 적절한 호흡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숨이 가쁘게 쉬어지지 않고 숨을 조절하며 말할 수 있기까지는 참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엘라가 잠든 밤에도 계속되었으니. 점점 좋아지는 델시아를 보며 엘라는 그저 기뻐할 뿐이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며.

델시아의 부단한 노력이 깃든 적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아가씨, 심심하지 않으세요?”

“응, 바깥만 봐도 좋아.”

“백작님께 편지라도 쓰시는 건 어때요? 백작님께서도 기다리실 거예요. 벌써 이곳에 오신지도 이 주일이 넘었으니...”

“…음. 그럴까?”

엘라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델시아가 선뜻 응했다. 엘라의 도움을 받아 책상 앞에 앉은 델시아가 펜을 들고 편지지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간단한 인사와 안부만이 적힌 편지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델시아가 추신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보고 싶어요.’라고.

그 뒤에는 자주 그리던 토끼를 그려 넣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탓에 삐뚤빼뚤한 토끼가 되어 우스웠지만, 그래도 그려내기는 했다.

편지에 향을 묻히고 실링으로 봉한 델시아가 엘라에게 건넸다.

“부탁할게, 엘라.”

“그럼요. 테오에게 전하고 올게요.”

델시아를 도우며 테오와 엘라는 부쩍 친해졌다. 서로 말까지 놓으며 지낼 정도로. 그 때문에 둘 사이에서 정분이 나는 것은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델시아는 엘라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점점 친해지고 있다는 데에 크게 만족했다. 자신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다행스러웠다.

테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온 엘라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에드윈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가씨, 편지를 전해주다가 들었는데 오늘은 공작님께서 밀린 업무를 하시다가 늦잠을 주무셨대요.”

“그래?”

“그리고 내일은 폐하를 알현하러 가신대요.”

델시아는 침실 안에만 있어도 에드윈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다. 사사로운 것까지는 잘 몰라도 에드윈의 일과나 그날의 기분 등 간단한 소식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참. 소토 경이 그러는데 공작님께서 성검과 멀어지셨대요. 그런데 성검이랑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성검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라고?”

엘라는 간혹 발레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가볍게 웃어넘기던 델시아는 새로이 듣게 된 이야기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얼어붙은 얼굴로 되물은 것이다. 델시아는 에드윈이 성검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줄은 몰랐다.

델시아는 성검과 대화가 단절된 채 지내는 에드윈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성검이 없는 에드윈은 상상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성검과 에드윈은 가까이 지냈으니까 말이다.

“아가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고개를 내저은 델시아가 다이어리를 펼쳤다. 근래 들어 델시아는 다이어리를 열심히 썼다. 꼭 마지막을 준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려드는 사람처럼.

엘라는 무리하다가 지쳐 잠드는 델시아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양 델시아는 무언가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에 매달렸다.

빗방울에 갓 떠오른 어스름한 달빛이 흐려졌다. 엘라가 창밖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찍 주무세요, 아가씨.”

“응, 엘라. 좋은 꿈 꾸렴.”

“아가씨도 좋은 꿈 꾸세요.”

아쉬움이 남는 인사를 한 엘라가 침실의 문을 닫고 나섰다. 혼자 남은 델시아는 다이어리에 성검과 에드윈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간혹 별채를 뒤흔들 정도로 커다란 천둥이 울리는 것에 놀라 몸을 발발 떨기는 했어도, 글씨에는 흐트러짐이 적었다.

이 또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나약해짐을 부정하고 발버둥 친 결과.

그리고 마침내 에드윈의 저택에서 지낸 것도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 동안 델시아는 점점 야위었으며, 미소를 잃어갔다. 반면에 에드윈은 잦은 외출로 저택을 비우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델시아는 꿈에 그리는 에드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아침마다 침실에 걸린 그림을 보는 덕에 얼굴은 잊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무언가 커다란 조각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공허한 느낌이었다.

델시아는 자꾸만 늘어지는 몸에 적응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무리해서 수를 놓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했다.

떠나가는 과거의 조각을 잡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으며 후원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런 일들을 해내는 데에 시간을 온전히 쏟았다.

하지만 이내 그런 것들도 할 수 없게 됐다. 체력이 너무 많이 줄어든 탓이었다.

“아가씨!”

“응.”

“이제 사냥대회가 열린대요. 저번에 손수건에 미리 수놓아두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응, 그렇지.”

“도련님께 드릴 손수건도 완성하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하루면 놓았던 수도 점점 붙들고 있는 기간이 늘었다. 십 분만 놓아도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가끔은 속이 메스껍기도 했다. 몸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델시아는 초조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에드윈이 웃는 얼굴만 보고서.

에드윈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던 델시아의 바람은 점점 부피가 커졌다. 종국에는 에드윈의 웃음을 보자는 데까지 도달했다.

“엘라.”

“네, 아가씨.”

“이걸 테오에게 전해줘.”

“이건 공작님께, 그리고 이건 도련님께 전해드리라고 하면 될까요?”

“응.”

두 장의 손수건을 건네며 말한 델시아가 느릿하게 숨을 뱉었다. 엘라가 침실 문을 닫고 나서자마자 델시아의 입에서 콜록거리는 기침이 나왔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기침한 델시아는 제 손바닥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선연한 피가 손바닥에 묻어있었다. 혓바닥에서도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얼굴을 찌푸린 델시아가 들고 다니는 손수건으로 피를 벅벅 닦았다.

제대로 지워지지 않고 이리저리 번지는 피를 보던 델시아의 입에서 다시금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하, 하아.”

지친 듯 늘어진 숨을 쉰 델시아가 눈을 질끈 감았다. 목이 따끔거리고 온몸의 힘이 빠진 것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다. 비틀거리며 걷던 델시아가 침대에 풀썩 주저앉았다.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머리도 웅웅 울리는 것 같았고 귓가도 먹먹했다. 꼭 열병에 걸리기리도 한 것처럼. 델시아는 자신의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대한 부정하고 미루고 싶었다. 아직은 조금 더 살고 싶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마음이 못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것에 초연해지는 것은 어려우니까.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기를.

빠르게 뛰는 심장 위에 손을 얹은 델시아가 천천히 심호흡했다. 원치 않았음에도 밭은 숨이 쉬어졌다.

델시아는 엘라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지친 상태였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올려다본 델시아가 문득 느껴지는 인영에 느릿하게 눈동자를 굴렸다.

눈을 두어 번 끔벅이자 침대 옆구리에 서서 몸을 바들바들 떠는 엘라가 보였다.

“엘라.”

델시아가 상체를 일으키려 바르작거렸지만, 쉽지 않았다. 엘라는 델시아를 도와줄 생각도 못 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엘라?”

델시아는 의아한 눈빛으로 엘라를 쳐다봤다. 자신이 누워있는 것은 엘라에게 익숙할 텐데, 무엇이 그리도 당황스러운 것인지.

“아, 아가씨.”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끝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처럼 목소리가 한없이 불안정했다.

“피, 피가..., 아가씨 드레스에 피가...”

“…피?”

엘라의 말에 델시아가 작게 반문했다. 손바닥에만 묻은 줄 알았는데, 아까 한 기침으로 드레스에도 피가 묻은 듯했다.

“아가씨, 당장 백작님께-”

“아니야, 엘라.”

제발. 더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아.

제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는다면 한달음에 달려올 것이 분명했다. 하던 일도 모두 내팽개치고 달려올 것이다.

델시아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아버지를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비밀로 할 생각이었다. 설사 작은 비밀이 모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과오가 된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냥대회 시작 날로부터 사흘 전이 되었다. 이번 사냥대회는 황실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북부에 있는 토푸르 영지에서 개최된다고 했다.

하여 사냥대회에 참가하는 귀족은 오늘부터 토푸르 영지로 향해야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에드윈도 마찬가지였다.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승전회도 참석하지 않았기에, 사냥대회만큼은 반드시 참가하라는 황명이 있었다.

에드윈도 테오도 발레인도 모두 사냥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쁠 것이었다. 델시아는 테오가 넋을 놓기 전에 손수건을 미리 전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따뜻한 볕이 별채의 후원을 감싸고 있었다.

그 평온한 전경을 감상하는 델시아의 머릿속은 조금 복잡한 상태였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에드윈과 마주치기는커녕 그와 스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마주치기를 바라는 우스운 심보가 델시아의 머릿속을 집요하게 주물렀다.

“보고 싶다.”

작게 중얼거리는 델시아의 얼굴이 그리움에 잠겨 어두웠다. 턱을 괸 채 창밖을 내다보던 델시아의 눈이 돌연 동그랗게 커졌다.

“...아.”

테오와 발레인 그리고 델시아의 에드윈이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에드윈이 이곳까지 걸음할 이유가 없는데...

델시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에드윈이 고개를 들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그의 눈에 들 리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소리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혹시 에드윈이 저를 보고 얼굴을 찡그릴까 봐. 각오했음에도 마음이 찢어질까 봐.

델시아는 얼굴을 찡그린 채 테오와 이야기를 나누는 에드윈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눈도 껌뻑이지 않고 하나하나 아로새기듯 바라봤다.

장미 덤불 앞에 선 테오가 무어라 말하자 에드윈이 한숨을 내쉬며 장미꽃을 쳐다봤다. 비바람에 살아남은 장미를 손에 쥔 에드윈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 모든 것을 관찰하던 델시아는 저를 쳐다보는 발레인과 눈이 마주쳤다. 슬쩍 미소 지은 델시아가 손을 조심히 흔들자 발레인이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에드윈...”

장미꽃을 놓은 에드윈은 이내 걸음을 돌려 본관으로 향했다. 아마도 사냥대회를 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다.

창문에 손을 얹은 델시아의 눈동자가 슬픔에 잠겼다.

열다섯 살 이후 델시아는 사냥대회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에드윈이 참석하면 델시아도 참석했으니까.

에드윈은 그 무렵에도 굉장한 실력자였다. 아무렴 성검의 주인이니 당연했다. 성검과 척척 맞는 호흡으로 마물을 사냥하는 에드윈의 모습이 너무나 반짝여 델시아는 매번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었다. 에드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에드윈과 함께 걷던 테오가 주춤거리며 뒤를 돌아봤다.

“왜 그러지, 테오.”

“…아, 아니에요.”

“별채에 뭐라도 있는 건가?”

“아, 아뇨?”

테오의 대꾸에도 에드윈이 멈춰서 뒤돌아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별채를 살핀 에드윈이 어깨를 으쓱였다.

“정말 아무것도 없군.”

“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에드윈이 다시 앞서가고 테오와 발레인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타이밍 좋게도 델시아가 창가에서 멀어진 것이다.

에드윈과 델시아가 서로를 보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섣부른 일인지도 모른다. 델시아도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에드윈의 거부 반응도 여전하고.

테오와 발레인이 상념을 떨쳐내고는 서둘러 에드윈을 따라갔다.

그것을 엘라에게 전했으니, 그래도 안심이었다. 테오의 입매에 은근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이라면 델시아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근래 델시아는 위태로워 보였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에드윈이 사냥대회를 위해 저택을 떠나고 점심이 되었다. 델시아는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엘라의 영향이었다. 델시아는 구석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엘라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끔벅거렸다.

델시아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아까의 일을 떠올리는 중이었다. 멈춰 서서 고개를 돌리던 에드윈을 보고 서둘러 주저앉은 자신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피하고 말았다.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에드윈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에드윈과 서로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참!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가씨.”

“응?”

“이거예요!”

엘라가 벨벳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더니 자랑스레 내보였다.

“…영상구?”

“네! 테오가 주고 갔어요. 공작님께서 사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겠대요.”

“테오가...”

에드윈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영상구를 두고 가다니. 델시아가 살짝 웃었다. 테오가 어떤 생각으로 두고 갔는지 느껴졌다.

엘라는 델시아에게 잘 보이는 쪽으로 영상구를 놓았다. 아직은 잠잠했지만, 사냥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에드윈의 모습이 선명히 전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백작님께 답신이 왔어요, 아가씨.”

“정말?”

“영지를 다녀오시느라 답신이 늦어지셨대요!”

“그랬구나...”

엘라가 나이프로 편지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델시아에 건네줬다.

제 아버지의 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편지를 받은 델시아가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사랑하는 델시에게.

델시, 잘 지내고 있느냐?

아델리오 공작이 네게 모진 말을 하지는 않던?

영지에 다녀오느라 답신이 늦어지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우리 델시, 이 아비는 언제나 네 걱정뿐이란다. 너는 나와 네 오빠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밖에 하지 않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델시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사실 나는 네가 저택으로 돌아와 편하게 지내길 바란단다. 그곳에서 모진 말을 듣고 상처받을 너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아놀드는 사냥 대회에 간다고 아침 일찍 나섰단다. 네가 보낸 손수건을 받고 어찌나 기뻐하던지.

이 아비에게 줄 손수건까지 만들 여력은 되지 않았겠지. 이미 짐작했단다. 하지만 네게 편지를 받았으니 손수건 정도는 아놀드에게 양보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우리 델시, 그곳은 어떻니? 아델리오 공작이 심은 장미를 보며 서글피 울고 있지는 않으냐. 이 아비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작은 글씨로 적을 정도로 갑갑한 것이니?

네가 언제 돌아와도 기꺼이 맞을 수 있단다. 아비는 네 결정을 항상 존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델시.

어젯밤에는 내 꿈에 셀레나가 찾아왔단다. 따뜻하게 웃으며 델시, 너를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어라 할 말이 없더구나.

나야말로 셀레나에게 너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단다. 눈치 빠른 셀레나라면 내 얼굴만 보고도 잘 알아들었을 테지. 델시,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올 기적을 포기하지 말자꾸나.

아니, 아니다. 그 기적은 이 아비가 간절히 바랄 테니, 델시 너는 괴로워하지만 말아다오.

사랑한다, 델시.]

편지를 읽은 델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목이 멨다. 바들거리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쥔 델시아는 눈물을 꾹 참았다.

엘라가 눈치채고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내렸다. 거센 비가 내리는 것처럼 델시아의 뺨에 눈물 줄기가 쉬지 않고 흘렀다.

“흐, 흐윽. 아…아빠.”

자신을 이리도 걱정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살갑게 대할 것을 그랬다. 아버지의 마음을 차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슬펐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델시아가 돌연 기침을 뱉었다. 이내 꺽꺽거리며 숨을 들이마신 델시아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 박동이 너무나 빨랐다. 쿵, 쿵, 쿵, 쿵, 쿵.

쉴 새 없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듣는 델시아의 표정이 점점 식어갔다. 온몸에 머물던 온기가 달아나는 듯했다.

델시아는 눈을 질끈 감고 필사적으로 심호흡했다. 심호흡이 한 차례 두 차례 이어질 때마다 심장이 점점 진정되어 갔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델시아의 얼굴이 잠시뿐인 평온을 찾았다. 델시아는 제 목에 걸린 로켓을 쥐며 습관처럼 되뇌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요, 어머니.

나흘을 달려 토푸르 영지에 도착한 에드윈은 평소 친분이 있던 카톤 자작저에 머무르게 됐다. 곧잘 지내기는 했어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카톤 자작의 제안이었기에 응하기로 했다.

“아델리오 공작님, 어서 오시지요.”

“카톤 자작, 오랜만입니다.”

“하하, 잘 지내셨습니까? 서부 변경을 무사히 지키셨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또한 잘 이겨내셨다더군요!”

카톤 자작이 에드윈을 반갑게 맞으며 웃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 에드윈이 카톤 자작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카톤 자작은 에드윈이 사용할 곳을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다.

“영애께서는 여전히 잘 지내시지요?”

“자작님! 저택이 더 멋져진 것 같네요!”

카톤 자작의 물음에 테오가 급하게 끼어들어 화제를 돌렸다. 카톤 자작은 의아한 얼굴을 지으며 테오를 쳐다봤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예, 생각보다 광산업이 잘 되어서요.”

“오, 일전에 말씀하셨던 광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일정 기간 광산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나오는 광물과 골드를 받으니 편하더군요. 아타즈 백작님께 정말 좋은 매물을 얻었지 뭡니까?”

카톤 자작의 말에 테오가 눈을 반짝이는 체를 했다. ‘영애’라는 말에 잠시 찌푸려졌던 에드윈의 얼굴도 다시 펴졌다.

테오가 안심하며 카톤 자작에게 다른 것들을 묻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마물들이 많아졌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물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저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냥 대회를 기점으로 마물 토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까 합니다.”

카톤 자작의 말에 에드윈이 고개를 돌려 관심을 보였다. 에드윈의 시선을 받은 카톤 자작이 조금 상기된 얼굴로 생각한 것들을 줄줄 늘어놓았다.

“방벽을 튼튼히 세우고 전문 수비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셀렉 백작님과 함께하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작님께서는…”

카톤 자작과 에드윈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연 방향을 틀었다.

“이럴 게 아니라 제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좋으실 대로.”

테오와 발레인을 잠시간 쳐다본 에드윈이 카톤 자작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저…, 목욕부터 하시겠습니까?”

눈치를 보며 서 있던 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장시간의 이동으로 지친 테오와 발레인이 선뜻 고개를 끄덕이며 하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사냥 대회가 시작됐다. 황제의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대회 시작을 알리는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에드윈은 테오와 발레인 그리고 가문의 기사 몇을 데리고 마물이 출몰하는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주인님, 손수건은 잘 챙기셨죠?”

“대체 이런 건-”

“에이, 그런 말씀 마시고 잘 챙겨두세요.”

아무렇게나 넣었던 손수건을 꺼내서 품 안에 단정하게 넣은 에드윈이 테오를 흘기다가 다시 출발했다.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에드윈이 주변을 조용히 탐색했다. 에드윈이 사냥에 몰입한 사이 테오는 작은 영상구가 달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영상을 찍기에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발레인, 주인님께서 몇 마리나 잡으실까?”

“글쎄.”

“많이 잡으셔야 영애가 다시 관심을 가지실 텐데.”

“글쎄.”

‘글쎄’라는 말만을 반복하는 발레인을 흘겨본 테오가 에드윈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숲의 중앙으로 향하면서 에드윈은 오크 다섯 마리와 슬라임 스무 마리 정도를 대적하게 됐다.

에드윈이 손쉽게 처리한 마물에 주최 측에서 건네준 마법 인장을 새기는 것은 테오의 일이었다. 하여 테오는 수시로 말에서 내려 인장을 찍느라 에드윈이 사냥하는 모습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제 주인의 멋진 면모를 담지 못했다는 사실에 짜증스러운 숨을 삼킨 테오가 발레인에게 영상구가 담긴 목걸이를 건넸다.

“네가 찍는 게 좋겠다.”

“거추장스러워.”

“아, 영애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한다고?”

“...”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델시아를 떠올린 발레인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에드윈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말에 올라탄 테오는 모처럼 적극적인 발레인의 모습에 작게 웃으며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공작님.”

“말하라.”

“성검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

에드윈을 지켜보던 발레인은, 그의 손에 쥐어진 검이 성검이 아닌 일반적인 롱 소드라는 것을 알아챘다. 지금껏 에드윈이 성검이 아닌 롱 소드로 전투나 사냥에 임한 적이 있던가.

발레인의 표정이 오묘해졌다. 정말 성검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아델리오 공작 가문은 대대로 성검을 모시는 가문으로, 그 사이가 매우 각별하였으니까.

“주인님.”

“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군.”

에드윈이 고개를 내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하자 발레인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 그 사정이 정말 제가 우려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 하고 여기면서 말이다.

얼마 있지 않아 마법으로 증폭된 뿔피리 소리가 두 번 들렸다. 주어진 시간의 절반이 지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은 에드윈이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따르던 테오와 발레인이 수군거렸다.

“발레인, 잘 찍고 있지?”

“대충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어. 너와 나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까!”

“...”

테오의 결연한 말에 발레인이 나지막이 한숨을 삼켰다.

그 시각, 델시아는 엘라가 놓은 영상구를 보며 멍한 눈을 했다. 영상구에서는 에드윈의 뒷모습이 한창 나오고 있었다.

델시아의 곁에 서 있던 엘라가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어떤가요? 전처럼 빛이 나시나요?”

“…응, 그렇네.”

“아가씨, 따뜻한 차를 내올게요! 아, 쿠키도 같이 내올까요?”

“쿠키는 괜찮으니까 따뜻한 차만 가져다줄래?”

“네!”

델시아의 말에 엘라가 침실을 나섰다.

“…에드윈.”

허벅지 위에 놓인 영상구를 들여다보는 델시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찬란한 에드윈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엉망진창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델시아의 눈망울이 투명한 물기에 젖어 들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파도가 모래성을 그대로 삼켰다.

모래성 안 보물함에 넣어뒀던 추억의 조각들이 파도에 쓸려 델시아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멍한 눈으로 영상구를 보는 델시아의 입매가 바르르 떨렸다.

심장이 다시금 아파졌다. 꼭 제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요동치고 있었다.

“하, 하아….”

심장께를 움켜쥔 델시아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 서둘러 심호흡했지만, 제대로 된 숨이 뱉어지지를 않았다.

“…아.”

엘라가 나간 문 쪽을 바라보던 델시아가 가쁜 숨을 내쉬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힘을 잃은 몸이 그대로 늘어졌다.

허벅지에 놓여있던 영상구가 도르르 굴러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영상구는 이내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닥에 나뒹굴게 됐다.

“아가씨, 차 가지고 왔어요. 저 들어갈게요.”

문을 두드리며 말한 엘라는 델시아가 아무런 대답도 없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왔다.

“아가씨, 설마 주무시는 거예요?”

델시아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엘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의 곁에 다가섰다.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마치 유리 조각이라도 밟는 듯한 소리.

의아한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델시아를 살핀 엘라의 눈동자가 바르르 떨렸다.

“아, 아가씨! 의, 의원. 의원을...!”

당황한 기색으로 더듬거리며 덱스의 이름을 뱉어낸 엘라가 다급히 침실을 빠져나갔다.

“데, 덱스!”

“덱스, 델시는 좀 어떤가.”

“음...”

엘라의 호출로 급하게 도착하여 진찰을 막 끝낸 덱스가 쉬이 입을 열지 못했다. 일전에 진찰했을 때 마력 측정기를 망가트릴 정도로 방대하던 마력에 움직임이 생겼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심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듯했다. 마력의 소용돌이가 완성된다면...

당장 마력 폭주가 일어나 생을 달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머물다가는 폭주에 휘말리고 말겠지.

페르도 백작을 마주하는 덱스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덱스, 무어라 말 좀 해보게.”

“이게..., 마력 폭주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마력...폭주.”

페르도 백작의 눈이 질끈 감겼다. 델시아가 쓰러졌다는 덱스의 연락에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물어물어 겨우 들은 대답이 마력 폭주가 우려되는 상태라니.

아찔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에 머리가 핑핑 도는 것만 같았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페르도 백작을 좀먹어가고 있었다.

“또, 또다른 문제는 없는가!”

“아무래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심장.”

페르도 백작의 얼굴이 가라앉았다. 역시나 심장의 문제였다. 비안나라고 저를 소개한 마녀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 년도 채 살지 못할 것이라던 델시아는 이제 겨우 한 달을 넘기고 있었다. 한 달을 갓 넘긴 상태가 이러한데, 이다음은...

페르도 백작이 천천히 고개를 내저었다.

“…안 돼.”

델시아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자신의 것도 아닌 마력에 잠식되어가는 델시아의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백작님...”

덱스가 조그맣게 페르도 백작을 불렀다. 하지만 페르도 백작은 대답할 수도, 덱스를 마주 볼 수도 없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델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슬픔으로 덧칠된 페르도 백작의 머릿속에 일순 비안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 그...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 너희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페르도 백작은 다급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아델리오 공작 저택을 빠져나갔다. 대기 중인 마부를 마주한 페르도 백작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도 외곽으로 가게. 어서!”

알 수 없는 직감이 그곳을 말하고 있었다. 서둘러 마차에 올라탄 페르도 백작이 초조한 얼굴을 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숲. 그 숲에서 페르도 백작은 정처 없이 헤매야만 했다. 일전에 델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셀레나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이 숲에 들어왔는지도 가물가물했다. 값비싼 옷이 너덜너덜해지도록 풀과 나무를 헤치며 걸었다는 것밖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수도 외곽에 이런 숲이 존재했던가, 하는 의문은 잊은 지 오래였다.

“허, 허억.”

턱 밑까지 올라온 숨을 몰아쉰 페르도 백작이 더는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다리를 힘겹게 끌어갔다.

숲은 끝이 보이지를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살만한 공간과 건물도 없었고. 그러나 숲을 다시 나가는 것은 싫었다.

직감이 자꾸만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직감이 뛰어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델시..., 델시.”

페르도 백작은 제 딸아이의 이름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창백했던 안색.

델시아가 쓰러진다면 당장 데리고 돌아가겠다던 일전의 말이 전부 잊힐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싸늘한 안색을 또 보고 싶지 않았다. 숨이 멎는 순간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다. 희미하게 흩어지는 숨을 잡지도 못하고 힘없이 서 있기 싫었다.

숲은 너무나 어두웠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나아가는 게 힘들었다.

“제발...”

간절한 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마저 이겨내야만 했다. 페르도 백작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무릎이 꺾여 넘어질 뻔했을 때, 거짓말처럼 눈앞에 빛을 뿜어내는 나무가 들어왔다.

“아..., 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비안나가 저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허겁지겁 나무 앞으로 달려간 페르도 백작이 크게 외쳤다.

“델시…, 델시를 살려주시오. 제발 우리 델시를 살려주시오!”

끼익, 나무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몸의 그림자가 무릎 꿇은 페르도 백작의 몸에 드리웠다.

“...너는.”

“델, 델시가...”

“델시아가 왜?”

페르도 백작을 일으켜 세운 비안나가 되물었다.

“쓰, 쓰러졌소. 안색이 창백하고 호흡도 약한데...의원의 말로는 마력이 폭주하고 있다고-”

“폭주?”

마력이 벌써 폭주할 리가 없는데.

굳은 얼굴로 중얼거린 비안나가 페르도 백작을 쳐다봤다.

“델시아 지금 어디있어?”

“아델리오 공작 저택의 별채에 있소.”

“안내해.”

비안나의 페르도 백작이 고개를 끄덕였다.

숲에서 나온 비안나와 페르도 백작은 마차를 타고 아델리오 공작저로 향했다. 향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건 비안나였다.

“괜찮을 거야.”

“...”

그 말에도 페르도 백작은 안도할 수 없었다. 델시의 초췌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안도가 가능할까.

그렇게 도착한 별채에서 비안나는 델시아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비안나의 차가운 손이 델시아의 이마를 덮었다.

그 상태로 미세하게 마력을 흘러 넣자 델시아의 몸에서 우글거리는 마력이 이마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

비안나의 아랫입술이 치아에 짓이겨졌다. 델시아의 마력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마력이 불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종류로 나뉘어 서로 충돌했다. 델시아의 생명력을 좀먹어가면서.

비안나는 제 뒤에서 걱정스러운 눈을 하는 페르도 백작을 쳐다봤다.

“급한 대로 마력을 눌러놓겠지만,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는 못 할 거야.”

“아, 아아...”

“지금껏 버틴 게 대단할 정도야. 생각보다 심각해.”

“델시...”

델시아의 몸에 흘러든 비안나의 마력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요동치던 델시아의 마력에 비안나의 마력이 덧대지자, 조금씩 진정되는 듯 보였다.

희게 질려있던 델시아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오, 델시...”

눈물을 삼킨 페르도 백작이 델시아의 손을 붙잡았다. 한없이 작은 손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다.

페르도 백작은 그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 억지로 델시아를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아서.

델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에드윈이 사냥 대회에서 돌아왔을 때는 페르도 백작의 노력으로 델시아가 고비를 넘긴 이후였다.

밀려 있던 대외 일정을 오전 내내 마치고 돌아온 에드윈이 책상 앞에 앉았다.

에드윈은 잠시 숨을 돌리고는 저번에 넣어뒀던 자료를 찾으려 책상 서랍을 뒤적였다. 찾던 자료가 아닌 애먼 펜이 하나 잡혔다.

“이게 뭐지?”

펜을 집어 훑은 에드윈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쪽빛 보석으로 장식되어있는 펜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자신이 구매했을 리 없는 디자인이었다. 보석 장식이 된 펜은 그의 취향과 거리가 멀었으니까.

책상에 대충 올려둔 에드윈이 다시 서랍에 손을 넣어 뒤적였다. 이번에는 쪽빛의 커프스단추를 찾을 수 있었다.

“...”

커프스단추 또한 에드윈의 취향이 아니었다. 애초에 쪽빛은 에드윈이 좋아하지 않는 색이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색의 물건을 사들일 만큼 희소성 있는 디자인도 아니었다.

자신의 취향이 아닌 물건이 서랍에서 속속들이 발견되는 것이 의아했다. 의아함 이후에 드는 감정은 불쾌함이었다.

저 물건들을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꼭 저 물건들이 병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관자놀이를 누른 에드윈이 거슬리는 물건들을 전부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려 설렁줄을 당겼다. 그러자 하녀, 안나가 들어와 가볍게 묵례했다.

“이 물건들을 당장 치우도록.”

“펜과 커프스단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에드윈이 귀찮다는 듯 대꾸하자 안나의 얼굴이 미세하게 밝아졌다. 좋은 조건의 권유라도 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끄덕인 안나가 펜과 커프스단추를 집었다.

에드윈은 기쁜 듯 보이는 안나의 태도에 의뭉스러움과 껄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아니, 안나의 태도에서 느끼는 것인지 다른 무엇에 느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잠깐.”

에드윈이 지시한 것을 손에 쥐고 나가려던 안나의 걸음이 멈췄다.

“내 침실에 가져다 놓도록.”

“이것들을 침실에요?”

“자꾸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안나가 떨떠름하게 대답하고는 집무실을 나갔다. 에드윈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머리가 다시 웅웅 울렸다. 무거운 돌덩이가 뇌에 얹힌 듯 답답하고 무거웠다. 에드윈은 결국 찾으려던 서류는 포기한 채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턱은 괴었다.

꼭 중요한 것을 잊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매일 에드윈의 꿈에 찾아오던 여자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의 망령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가.

“…이상하군.”

에드윈을 묶어두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던 여자가 무어라고 자꾸 생각나는 것일까. 얼굴이 뿌옇게 보여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동했다.

꿈속의 자신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굴었다. 원하지 않는 말을 지껄이면서 여자를 웃게 만들지 않았나.

“제길.”

욕지기를 뱉은 에드윈이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다.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를 떠올리니 또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팠다.

꼭 지독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기도 했고.

“피우스.”

- ...

에드윈은 성검 피우스를 불렀으나 피우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그럴 거지?”

- ...

피우스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까지 단단히 토라진 피우스는 본 적이 없었는데.

에드윈은 토라진 피우스를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고민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저 피우스가 무언가를 좋아했었다는 기억만 어렴풋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지?

에드윈은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답까지 떠오르지는 않았다. 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피우스가 사람을 좋아할 리 없지.”

그래, 피우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대로 피우스를 관리해온 아델리오 공작가의 일원에게도 쉬이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정도니까.

그러나 에드윈과 피우스는 꽤 친한 편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더라?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군.”

피우스와 자신이 왜 친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에드윈은 자신이 단편적으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테오에게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기억났으니까. 하지만 이제 와 보니 기억이 온전한 것은 아닌 듯했다. 피우스와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니.

에드윈이 착잡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 모자란 녀석.

에드윈의 눈동자가 돌연 커졌다. 책상에 기대어 있던 피우스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꼭 에드윈을 다그치듯이.

- 제 몸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놈이 아델리오를 이끌어간다고?

“피우스, 드디어 말할 생각이 생긴 건가?”

- 모자란 녀석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델시아노르 불러.

“무슨 말이야?”

- 델시아 부르라고.

“…그게 누군데. 대체 무슨 소리를-”

말을 잇던 에드윈이 눈을 찡그렸다. 심한 두통이 일기 시작했다. 피우스가 뱉은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뇔 때마다 두통이 뇌를 잠식했다.

희게 질린 얼굴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쥔 에드윈이 숨을 몰아쉬었다.

- 쯧.

혀를 찬 피우스가 진동을 멈췄다. 낯선 듯 익숙한 이름을 뇌리에서 지워내고 나서야 에드윈은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델시아가 아델리오 공작 저택에 온 지도 반년이 다 되어 갔다. 불현듯 찾아온 고비를 넘기고부터는 침실 밖을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델시아는 정말 죽을병에 걸린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거나 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게 미소지을 뿐이었다.

근래 델시아가 눈을 뜨는 시각은 새벽이었다. 오늘도 델시아의 옆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미약한 온기조차도 남아 있지 않은 싸늘한 침대 옆자리.

그것은 이미 구멍 난 델시아의 마음을 후벼팠다. 델시아의 쪽빛 눈동자는 우울함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델시아는 끝없는 공허와 우울 그 끝자락에 있을 감정에 갇혀 반년을 보냈다.

“…에드윈.”

사랑해 마지않는 그녀의 연인 에드윈은 반년 동안 델시아를 찾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델시아와 비어진 자리를 채운 인공 심장만이 델시아의 전부였다.

델시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제 정말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공 심장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생을 살아가려던 것 자체가 큰 욕심이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으니.

델시아는 고개를 돌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다.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와중에도 날은 밝아왔다.

델시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듯 하루도 빠짐없이 떠올랐다. 가끔은 떠오르지 않아도 될 텐데.

없는 줄로만 알았던 미련은, 몸이 나약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질수록 피어올랐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나 델시아를 흔들었다.

처음에는 에드윈을 볼 생각이 없었던 델시아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미련의 크기가 커졌다.

분명 에드윈을 볼 기회는 충분했다. 하지만 건강이, 상황이, 델시아의 용기가 허락하지 않았다.

에드윈의 측근이 델시아를 위해 힘을 써줬음에도 말이다. 델시아는 어제 엘라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버지.”

결국 견디지 못한 제 아버지가 에드윈을 찾아갔었다고. 별다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으나 델시아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엘라가 침실로 들어왔다. 델시아의 곁에서 적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훔쳤던 엘라의 볼은 움푹 패어있었다.

그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탓이었다. 엘라가 천천히 델시아의 환복을 돕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굳게 닫힌 문이 벌컥 열렸다.

문을 등지고 침대에 앉아있던 델시아는 당연히 엘라가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하여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물었다.

“엘라?”

델시아의 목소리에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아니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걸음이 델시아를 향해 옮겨졌다.

창가를 보며 텅 빈 눈을 하던 델시아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에드윈.”

“귀한 손님이 별채에 지낸다고 하여 숙고하다가 방문하였는데.”

서릿발처럼 차가운 음성이 델시아의 귓전에 선연히 꽂혔다.

에드윈이었다.

델시아의 에드윈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오로지 그녀만이 만질 수 있던 에드윈.

델시아는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야위어버린 손을 뻗었다.

자신의 얼굴을 향해 뻗어지는 가느다란 손을 잔혹하게 쳐낸 에드윈이 싸늘히 말했다.

“그 손님이 일면식도 없는, 어느 가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군요.”

“…에드윈.”

“혀가 잘리고 싶지 않다면, 그 입을 다무시길.”

꽃이 필 정도로 따스했던 눈동자가 온데간데없었다. 저를 보며 지어주던 부드러운 미소도.

결국 델시아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다. 누군가 찬물을 끼얹기라도 한듯 축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각오했음에도 마음이 쓰라렸다.

제 이름만은 기억해줬으면 했던 바람이 사치였던 것일까.

델시아는 화끈거리는 손목을 쥐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싸늘한 눈을 마주하니 생각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참담한 기분이었다. 에드윈을 향한 마음이 전부 부정당한 것처럼 괴로웠다.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아.”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

델시아의 입술이 달싹이려다 다물어졌다. 당신의 연인이었던 델시아라고.

당신과 감히 미래를 꿈꿨던 델시아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그러나 싸늘한 눈을 하는 에드윈이 그 말을 들어줄까.

델시아의 말을 듣고 기억을 되찾았다며 그녀를 꽉 안아줄까.

말도 안 되는 바람이겠지. 그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기대겠지.

델시아의 대답을 기다리던 에드윈의 얼굴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더 이상의 시간도 내어주고 싶지 않을 만큼 델시아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델시아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 당연한 사실을 꼭 맞닥뜨려야만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니.

“됐습니다. 나가주십시오.”

“...”

“당장 나가주십시오.”

반년이었다. 에드윈의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에드윈의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별채에 산 시간이.

반년이었다. 에드윈과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별채에 죽은 듯이 있었던 시간이.

그런데 이제야 델시아를 찾아온, 델시아의 에드윈이.

델시아를 모른다는 얼굴로, 이상한 사람을 본다는 얼굴로 말한다.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고.

델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짜 심장이었다면 이 느닷없는 상황에 놀라 쿵쾅거렸을 것이다. 아플 때만 쿵쾅거리는 것이 아닌 정말 놀라서.

각오했었다. 에드윈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기억할 가능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그런데도 은연중에 기대했다.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마주한 자신을 기억해내기를.

그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적은 이번에도 빗겨나갔다. 언제나처럼.

그러니 이제는 포기해야만 한다. 델시아가 바라왔던 모든 것을. 델시아가 기대했던 자그마한 바람을.

델시아가 알던 에드윈은 이제 없었다.

애초에 델시아는 에드윈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왔을 뿐이다. 그래, 그랬을 뿐이다.

그렇게 저를 토닥이니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던 기분이 아주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델시아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침대 기둥을 잡고 힘겹게 일어난 델시아가 예를 갖췄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미약한 목소리가 에드윈의 귓가에 간신히 닿았다. 에드윈은 기가 찬다는 듯 실소하며 지껄였다.

“해준 것이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

“그간 별채에서 지내도록 살려둔 것에 감사하시는 겁니까.”

“...에드윈.”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괜한 인사치레는 됐으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자락을 쥔 델시아의 야윈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델시아는 울컥하려는 것을 애써 참아내고 있었다.

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중한 에드윈에게 울며 매달리고 싶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런 낯선 모습은 무서우니 제발 자신을 꼭 안아달라고.

전처럼 귓가에 다정한 말을 속삭여 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를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에드윈이 손수 문까지 열어주는데 어떻게 매달릴 수 있겠는가.

델시아는 비칠거리며 문 앞에 선 에드윈을 지나쳤다. 에드윈은 팔짱을 낀 채 침실을 나서려는 델시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곡예라도 하듯 아슬아슬하게 걷던 델시아가 이내 풀썩 주저앉았다.

한계였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심장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끄는 것은 어려웠다. 심장은 말 그대로 존재할 뿐이었으니.

근 몇 달간은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다였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걷는 것도 반년 만에 처음이었다. 누구의 부축도 없이는 별채 안 침실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심장이 뻐근했다. 홀로 걸었기 때문인지, 비참한 현실에 예고도 없이 내던져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내 삐-, 하는 이명과 함께 델시아의 눈꺼풀이 그대로 감겼다. 바닥에 앉은 채로 있던 델시아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도.

“...”

그것을 지켜본 에드윈의 눈동자가 크게 뜨였다.

“이봐!”

에드윈이 놀란 목소리로 델시아에게 달려갔다. 델시아의 얼굴은 희게 질린 상태였다.

보는 것만으로 불쾌한 기분이 드는 존재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에 심장은 왜 이렇게 뛰는지.

에드윈이 미간을 찌푸리며 델시아를 안아 들었다. 축 늘어진 몸이 기이하게도 가벼웠다.

침실 침대에 델시아를 내려놓은 에드윈이 옆에 달린 설렁줄을 당겼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엘라가 허둥지둥 달려오다가 에드윈을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아, 아델리오 공작님.”

에드윈은 짜증이 담긴 눈으로 엘라를 쳐다봤다. 말 한마디 없음에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의중이 꾹꾹 눌러 담긴 시선이었다.

엘라는 바르르 떨며 테오에게로 달려갔다.